



# 時 計 塔

SIGETOP



2008년 4월 26일 발행

서울대학교醫科大學美洲同窓會 發行

제35권 2호

172-10 45th Avenue, Flushing, NY 11358  
snucmaa@yahoo.com / www.snucmaa.org  
Tel: (718) 888-2622 Fax: (718) 888-2608

발행인: 崔英子  
편집인: 金炳哲

편집위원: 徐亮 盧在煜  
徐仁錫 李元澤

자문위원: 盧鎔冕 李熙景  
許善行 宋寬鎬

## 제25차 연례학술대회 성황리에 마쳐



###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 많은 선후배 동문들께서 참석하셔서 이번 라스베이거스에서 거행되었던 convention을 빛내주셨고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셔서 감개무량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었더라도 많이 양해하여 주십시오.

전 회장님들과 선배님들의 끊임없는 협조와 격려, 후배님들의 열성과 현 운영단들의 눈물어린 희생과 열정으로 이번 convention을 성황리에 무사히 마치게 되어서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대회장 이종현(66), 골프준비위원장 김은한(66), 총무 이선희(81), 학술위원장 이영인(86)동문과 제1부회장 민발식(66)동문 그리고 Mrs. 이종현(66), Mrs. 곽승용(71)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김택수(63) 선배님께서 지난 9개월간의 준비기간 동안 끊임없는 조언과 협조를 하여 주셨고 entertainment program을 알선하여 주셨으며, 컨벤션 동안 여러 동문들의 즐기는 모습을 사진을 DVD로 제작 하셨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성과 헌신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convention을 위하여 한국에서 수 만리를 건너 오셔서 물심양면으

로 성원하여 주신 박희백(57)선배님, 심영보(61)선배님, 서울동창회 부회장인신 윤정철(65)선배님, 이병훈(66)동문께 감사드립니다. 더구나 대금을 성원하여 주신 강신호(52)선배님, 이길여(57)선배님들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이번 scientific session과 spouse program에 훌륭한 강의를 하여주시는 미국 각처에서 또 한국에서 오신 연사 여러 동문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이외에도 연사로서 참석하신 동문자제분 여러분들께 감사 안부드립니다. 강의 수준이 대단히 좋았다는 평판과 칭찬을 감사님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습니다.

또한 convention을 위하여 많은 동문들께서 상당한 금액을 donation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동창회의 회장직을 맡아 일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 의과대학동문들의 모교에 대한 애착심과 금지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조의열(66)동문과 Mrs. 박용길(66)께서는 art exhibit을 하시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셨으며 또 판매 금액을 convention 자금으로 봉헌하셨습니다.

처음으로 동창회 모임에 참석한 Young Alumni와 Hamchoon Women Alumnae들이 즐기는 모습을 보고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미주동창회의 앞날에 대한 고무를 느꼈습니다.

다시한번 여러 동문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운영단을 대표하여 동문들과 가족 여러분들께 건강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회장 최영자 드림



골프대회가 열린 골프 코스, 학술대회에서, 함춘여의사회 소개, 그리고 패션쇼

컨벤션 화보 8, 9, 16면

# 2007-2008 제2차 이사회 초록



일시: 2008년 4월 26일(토) 오후 7시  
장소: Korea Palace,  
24 Piermont Rd. Closter, NJ

### 참석자:

박호현(58) 이운순(58) 강상진(59)  
김병석(59) 김은섭(59) 채규철(59)  
이희경(61) 이상무(62) 한기현(63)  
이유찬(64) 조동준(64) 최준희(64)  
한태진(64) 민발식(66) 이명희(66)  
이종현(66) 최순채(66) 최영자(66)  
윤효윤(69) 곽승용(71) 서인석(73)  
백승원(79) 최선희(81) 심인보(83)  
이영인(86)

### Proxy:

노용면(55) 신상균(58) 이만택(58)  
민병덕(59) 서영석(61) 한혜원(61)  
김택수(63) 권정덕(64) 이홍표(64)  
이한준(65) 황규정(65) 김은한(66)  
이성근(66) 분광재(68) 김홍서(69)  
엄규동(69) 오용호(72) 황용규(72)  
문대욱(73) 김동훈(77)

최선희 총무 성원 보고 (총 55명중 25명 참석, 20명 Proxy) 8시 개회를 선언함. 2007-2008 년 제1차 이사회 (2007년 10월 14일) 초록을 수정없이 동의, 제청으로 통과.

### 회장 보고 (최영자 회장):

첫째로 이번 convention에 많은 선배 동문께서 참석하였고 불심양면으로 성원하여 주신것에 대하여 감사의 표의를 하고 회장직을 맡은후 처음으로 보람을 느꼈다고 인사의 말을 하였다. 한국에서 오신 선배 동문께 감사하며 강신호와 이길여 선배님의 성원과 대금 donation에 특별감사 드렸다.

이번 운영단 Dr & Mrs 이종현 Convention Chair, 이영인 학술위원장, 최선희 총무, 백승원 재무, 민발식 제1부회장, Dr & Mrs 곽승용 제2부회장의 희생과 아낌없는 열성에 감사를 표하였다.

이번 컨벤션에 많은 성금이 들어와

Silver Project, Green Project와 Charity Committee에 fund를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둘째로는 new website를 동문 한 분이 작성하셔서 4월 19 날자로 열리게되었으며 많은 동문들이 애용하기를 희망했다. 셋째로는 Charity Committee에서 IRS 에서 approval 받은 세 단체에 성금을 주기로 합의를 보았으며 한국일보와 중앙일보에 기사가 실릴것 이라고 하였다.

### 총무보고 (최선희 총무)

한해동안 support해 주신 BOD 위원들께 감사, 장래에 여성 멤버들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동창회원들의 배려 요청함.

### 재무 보고 (백승원 재무)

지난 12월 annual ball과 라스베가스 컨벤션 모두 재정상 무리없이 치름. 컨벤션에서 모금을 성공적으로 끝냄.

### Committee Reports

- (1) Finance: (최순채 위원장) - 보고 사항 없음
- (2) Scholarship (오용호 위원장) - absent
- (3) Fund Raising (문대욱 위원장) - absent
- (4) Scholarship Fund Management: (이명희 위원장) - 2008년 4월 21일 현재 장학기금 \$426,502 reflecting 0.4% loss (참고 S&P 500 는 5.4% loss from 1/1/08).
- (5) Research and Fellowship: (한혜원위원장) - absent
- (6) Green Project: (서인석 위원장) - 2007-2008 green project 장학금이 서울의대 네 명의 학생에게 지급되었으나 기금이 늦게 지급되어(3월 지급, 학생들 2월 졸업) 공식수여 행사를 하지 못하였다. 뉴욕방문 중의 서울의대 재학생 박재영군과 2008년 2월 13일 committee meeting. 오용호, 최선희 동참. 서인석위원장 6월

말로 임기를 마치기를 요청.

(7) Publication: (김병석 위원장) - 4월 시계탑 발행이 라스베가스 컨벤션 기사 때문에 늦어져 5월 초에 발송하게 되었다.

(8) By-Laws Committee: (노용면 위원장) - 보고사항 없음

(9) Advisory & Exchange: (이만택 위원장) - absent

(10) Nominating: (조동준 위원장) - 새로운 보드임원을 다음과 같이 추천.

이현영(68) 이태석(67) 조의열(66) 강태수(71) 조명호(62) 손영진(62) 김태웅(63) 이성춘(70) 김일영(71) 최광휘(76)

(11) Central Office Management: (곽승용 위원장) - 동창회 사무실 운영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 committee 활성화가 필요함. 사무실의 inventory와 secretarial time allocation 등의 목록 작성들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사회의 가결로 다음사항이 통과되었다: Office Secretary 월급인상; 뉴욕지부의 사무도 secretarial duty에 포함.

(12) Silver Project: (한기현 위원장) - 설문조사를 지난 시계탑과 함께 내보낸 결과 많은 응답이 들어왔고 (~6%) 결과를 분석하여 라스베가스 컨벤션에서 발표. 이번 6월에 남미 여행이 예정됨 (신문참조).

(13) Charity Service: (황용규 위원장) 최영자 회장 보고

Charity Ad Hoc Committee 에서 다음과 같은 세 봉사기관에 기금을 기증하기로 결정하여서 중앙일보 기자가 참여한 가운데 BOD에서 \$3,000을 각 기관에 기증하였다.

1. 사랑의 왕진 가방을 SAM International Inc. 에 기증: 의약품과 의약품, 구약국, 의료기계 등을 담은 가방을 단동병원을 통하여 북한주민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가방 하나당 50\$이므로 이번 서울의대미주동창회의

기증으로 60개의 왕진가방을 봉급할 수 있게 되었다.

2. 뉴욕 가정상담소 (The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 Center); 과거 19년 동안에 걸쳐 NY tri-states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위하여 아동, 청소년, 성인들을 대상으로 언니-형 멘토링 프로그램, 방과후학교, 상담, 피해자 옹호서비스, 자원 봉사교육과 커뮤니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 Asian Youth Center of NY: 퀸즈 지역에 거주하는 14세에서 21세에 이르는 비행청소년과 그 가족들을 과거 17년 동안 돕는 단체이다. 이들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학문적, 경력적 필요들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민자들과 소수민족의 자녀들을 직접 간접적으로 도움고 있다.

(14) Directory/Website: (이성근 위원장) 최영자 회장 보고

동문 한 분이 과거 여러달에 걸쳐서 수고하셔서 새로운 website (www.SNUCMAA.US)를 건립하게 되었고 자세한 내용과 사용법은 시계탑에 게재가 될것이라고 하였다.

(15) Convention Chair (이종현 위원장) - 이외로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셔서 컨벤션을 빛내주신것을 감사하였고, Reunion에 280명의 동문께서 참석하셨으며 두째날 탈렌트 쇼에서 처음으로 열린 fashion show가 특광이었고, 이길여 선생님의 Keynote Speech가 Banquet에서 있었고 강신호 선생님께서 3일간 다 참석하신 것에 감사를 올렸다.

(16) Scientific Chair (이영인 학술위원장) - 이번 학회에 Science Session의 evaluation이 좋음.

(17) Vice President (곽승용) - 오는 5월 10일 뉴욕지부 골프대회에 많은 참여 부탁.

### New Business

합춘의학상

최준희 전회장 - '합춘의학상'에 관해 다음사항 건의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이사회를 통과)

하권익 서울대동창회장에게 합춘의학상의 규정을 임의로 한국에서 바꾼것에 대해 이사회 위원들이 공동성명

으로 편지내어 매년 시상마다 한 명 이상의 미주 회원이 수여될 수 있도록 요청할것.

조동준 전회장 다음사항 건의:

(1) 매년 Special Member Award를 선정하여 컨벤션에서 시상 (2) \$3000 이상의 donation 하는 회원에게 평생 회원 자격증여 (3) 회장임기 2년으로 하고 컨벤션도 2년에 한번 할 것 등을 건의.

기록: 최선희 총무(81)

## 남가주지부 소식



안녕하십니까?  
남가주 동창회를 맡은 김성환입니다. 계절이 시작하는 연두빛 따스한 봄입니다. 각 동문들의 따뜻한 동지마다 건강과 제비꽃 행복이 채워지기를 기대하며 올해 서울의대 남가주동창회 일년 계획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2008년 1월 28일(토) 정기총회 (Grand Wilshire Hotel)
- 2008년 4월 24일(일) 춘계 골프대회
- 2008년 8월 23일(토) 선배 친교의밤
- 2008년 9월 28일(일) 추계 골프대회
- 2009년 1월 9일 (토) 정기총회

동창회는 동문 여러분이 만드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모자이크 작품입니다. 성의어린 시간 위에 정성의 마음들을 더하여 우리들의 동창회를 뜻뜻하게 채워봅시다.

동문 여러분, 해바라기 열정 같은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 이재락 동문의 영부인 작고 소식을 듣고

이재락 선배님(54)의 부인 차지순 여사께서 지난 1월 19일 향년 77세의 나이로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자택에서 별세하셨다.

나는 1960년대에 캐나다 뉴파운드랜드 주의 법의책임자로 일하면서 이분들과 아주 가까이 지냈었다. 나의 사무실과 병원이 주가 경영하는 같은 건물속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돌아가신 사모님은 말이 적고 섬세한 성격이 가진 옛적 한국식 여인으로 기억된다. 요리솜씨가 참 좋았다.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던 그분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이분의 영전에 삼가 조의를 표하는 바이다. - 노용면(55)

## Caribbean Cruise

서울대학교 동창회 뉴욕지부가 조직한 카리바안 크루즈가 지난 1월 19일부터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여기에는 총 34명 참가했다.

의과대학 출신으로서 는 우리 내외와 노용면(55)동문 내외가 참가했다. Puerto Rico, St. Thomas, St. Maarten, Antigua, St. Lucia, 그리고 Bardados 에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한원봉(50)





# 사랑을 베푸는 자랑스러운 동창회!



지난 십개월 동안에 여러 동문들의 아량과 성원으로 charity activity를 위한 모금이 되었습니다. Charity Committee(AdHoc)에서 상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세 봉사기관에 각 3천달러씩 기증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번 4월 26일에 있는 Board Meeting에서 기증되었습니다. 사진설명: 성금을 기증받은 세 봉사기관 대표들과 최영자

## 사랑의 왕진가방(MESK)



2005년도에 성홍열, 홍역 등의 과거(문명 사회에서는 거의 사라진) 전염병으로 많은 생명이 희생되었을 때 이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1만개의 왕진가방에 의약품, 의약품, 외상 치료를 위한 구급약, 의료기계(혈압계, 청진기, 체온계 등) 40만개의 의료품들을 담아 북한 전역 5000개의 진료실에 분배 함으로서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2005년 처음 만들었던 왕진가방과 그 내용물- 그 후 재보충 될 때마다 내용물이 첨가 되었다.

2005년에는 10명의 우리 스텝들이 신의주로 들어가 상주하면서 북한 인력을 고용하여 가방을 완성하고 평안북도의 일부 진료실들에게는 직접 전달하였고 우리 스텝 한 사람이 한 달간 북한 내부에 거주하면서 북한의 분배를 확인하였다. 이것은 분단 역사상 처음 있는 역사적인 일이라고 언론들은 보도했다.

2006년도에는 두 번에 나누어 그 내용물 40만개 전체가 다시 보충되었고, 2007년도에 역시 40만개의 내용물들이 단동복지병원을 통하여 북한으로 직접 전달되었다. 금년 2008년도에도 응급 처치에 필요한 내용물들을 좀더 보충하여 더 많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다시 1만개의 가방을 보낼 것이다.

여기에 선헤양제약공장에서 제조된 어린이와 임산부들을 위한 특별비타민과 영양소의 보급을 병행한다면 예방의학적 차원과 기본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은 우리의 동족이다. 세계 모든 곳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다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한국은 스스로 도울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 그 내부의 불평등한 분배와 잘못된 개인주의가 이를 막고 있는 것이다. 올바른 계몽과 지식인들의 숭수수법이 있다면, 세상을 달라 질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다르다. 스스로 도울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리고 선량한 백성들이 가장 큰 피해자들이다.

이들은 우리가 돕지 않으면 죽을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들 스스로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들은 그렇다치더라도 우리는 달라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힘도, 능력도, 권력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 그래서 잃어버려도 억울한 것도 없고 세상적인 명예욕이나 재물에 큰 욕심 없는 사람들, 그래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말 한다!

단동복지병원, 집안과 장백의 진료실들은 강변을 따라 북한과 접경 지역에 있다. 그 산하에는 120여개의 처소교회들이 있다. 이 곳에 밤마다 먹을 것과 의약품을 찾아 건너 오는 사람들, 제대로 신지도, 입지도 못한 채 끙끙 얼어 붙은 강을 건너 넘어 온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과 두꺼운 겨울 외투를 입혀 주면 그들은 우리의 손을 잡고 목놓아 통곡을 한다.

우리도 같이 운다. 이것이 우리가 그 곳에 병원을 운영하고 그들을 돕고 있는 이유이다.

부족한 우리들을 좋게 생각해 그 곳을 직접 방문 하시고 또 도움을 주신 최영자 회장님과 여러 동문들에게 감사사를 드립니다. - 박 세 록 (63)



"선샤인 프로젝트" - 2007년도 재보충 작업을 하는 봉사자들



평안북도 근처의 진료실들에게 가방을 직접 전달 해 주는 장면



현장에서 직접 진료하며 봉사하는 최영자 회장

## 뉴욕 가정상담소

뉴욕 가정 상담소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 Center)는 19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비영리 단체로서 뉴욕 트라이 스테이트 지역에 주거하는 한인들을 위해 아동, 청소년, 성인들을 대상으로 언니-형 멘토링 프로그램, 방과후 학교, 상담, 피해자 옹호 서비스, 자원 봉사교육과 커뮤니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에서 서비스를 받는 분은 대략 일년에 1200명 정도이며, 600여건의 24시간 핫라인 전화, 600여회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31명의 자원 봉사자들이 5400시간에 달하는 봉사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언니-형 멘토링 프로그램은 7세 부터 18세의 아동/청소년들이 모범적으로 전문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배들을 정기적으로 만나게 하여 자존감을 얻게 하고, 진로 상담을 받게하며, 리더쉽 등을 습득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우수한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커뮤니티 프로젝트팀은 기금 모금 마련 활동, 한인 사회가 당면한 이슈에 대해 토론을 통하여 미국계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민 일세의 저소득층 가정에서 성장하는 6세 부터 12세까지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호돌이 방과후 학교는 어린이 개개인에게 적당한 학습 지도, 정신적/지적/사회적인 재능을 발달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수법을 통해 어린이들이 성장해서 훌륭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상담을 통해 내담자들은 부부 갈등, 자녀 교육, 심리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 옹호 서비스를 통해 가정 폭력 및 각종 범죄 피해자들은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전문 상담인들의 통해 그들의 권리에 대해 배우고, 상담을 통해 정신적 치료 받고, 안전 계획을 세우며 여러 기관을 통해 그들에게 필요한 재정적인 도움, 주택 서비스, 법적인 도움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뉴욕 가정 상담소는 여러 종류의 피해를 보신 분들을 돕는 차원에서 나아가서는 지역 사회 안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자원 봉사자 교육을 일년에 두 번 실시하여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정폭력, 성폭력, 이민법, 알코올 중독에 관한 교육, 지역 사회에서 주어지는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자원 봉사자 교육을 수료한 분들은 뉴욕에 위치한 한국 기관으로서 유일하게 24시간 긴급 핫라인을 제공하는 뉴욕 가정 상담소가 핫라인 운영을 통해 위험 상태에 있는 분들의 도움 요청시 신속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상담인이나,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관계된 기관들과 연결해 줍니다. 이뿐 아니라, 저희 기관은 커뮤니티에 거주하시는 한인들이나, 한인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분들에게 미국 사회에 있는 한인들이 당면한 이슈에 대한 정보나 교육을 제공해 줍니다. 또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저희 기관의 상담가들은 주류 사회의 각종 전문인들에게 한국인들의 문화에 대한 트레이닝을 제공 함으로서 그들의 한국 문화 인식도를 높여주고 나아가서 그들이 한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들을 좀더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이 모든 서비스는 모두 무료로 제공되며, 뉴욕 가정 상담소의 핫라인 전화 번호는 718-460-3800 입니다.

## Asian Youth Center

퀸즈지역에 거하는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심리적, 학문적,경력적 필요들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민자들과 소수민족의 자녀들을 돕는 일에 직접, 간접적으로 도와고있습니다. 저희 청소년운동은 역사가 오래 되었습니다만 시대를 따라 학생들을 돕는 방법이 다양하였습니다.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위하여 도움 때가 있었고 범죄를 많이 저질러서 감옥에 학생들이 갈 때 돕는 일을 할 때가 있었고 학교에서 어려움을 당하여 부모들을 도와서 도움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청소년센터는 학교에서 클럽을 만들어서 거점을 만들고 그들을 선도하고 상담을 하고 도움 일을 현장에서 찾는 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가서 일하는사역자들을 통해 접촉되는 학생들만 해도 매주 200명이 가까이 됩니다. 청소년센터는 찾아가서 돕는 것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학생들의 문제가 내면화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컴퓨터 중독문제 입니다. 학생들을 돕는데 지도자로 훈련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모범이 되고 영어권에 있는 학생들을 영어를 가르칠 수 있게 테솔훈련을 시키어서 학생들 사이에서 가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배우는 학생들은 꿈을가지고 배웁니다. 학생이지만 가르치는 자로 일하게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배우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빠지지 않고 수업에 참여케 합니다. 상담을 하는 것도가르칩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작은데서 일이 커집을 압니다. 학생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훈련을 시키는 것은 지도자가 되는 훈련이라 믿습니다.

영어 때문에 문제가 되어 졸업을 못하는 학생들이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영어를 못하지만 비싼 돈을 내고 학원에 가기도 힘든 학생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큰 도움과 큰 효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장래의 희망이 학생들이라고 하면 조금씩이라도 돕는 힘들이 합하여지면 장래에 큰 열매를 가져 올 것이라 믿습니다. 청소년센터는 많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을 많이 접촉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편입은 지금 2차로 모여지는 영어 교사훈련에 장학금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학생들을 돕는 고마운 마음들에게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좋은 열매가 있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의대미주동창회에서 교협청소년 센터에 도움을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청소년센터 대표 양희철

# 25회 동기들의 Mexican Riviera Cruise 여행

강태수 (71, 미시간)



폭설주의 경보가 내린 금요일오후 우리는 비행기가 뜰 수 있을까 걱정해야 했다. 동부지역에서 세종문 부부가 LA 에서 합류하기로 했는데, 그들 걱정도 됐다. 그동안 준비하고 e-mail도 보내고 동기회장과 전화도 많이 했는데, 눈때문에 참석 못하게 된다니 허탈한 마음이 들었다. 한참 기다렸다 비행기는 디트로이트 공항을 떠나 밤늦게 LA에 도착했다. 오랫동안 동창들을 만나려고 이런 고생을 한다는 것과 그들과 지낼 일주일 생각이 설레임에 뒤섞여, 5시간 비행에서 좋고 헛꿈도 꿔나보다.

이번 25회 동기들이 모여서 Mexican Riviera Cruise를 하게 된건 우리가 이년전 졸업 35주년 기념행사로 무주 리조트에서 모여서 3박4일을 보내고 그 열기를 5년후 40주년 모임까지 기다릴 것없이 중간에 만나자는 생각들이 많아서 한국, 미국 동기회장들이 협력해서 행사가 마련된거다. 바쁘게 살다보니 나이 60이 되고 이제는 우리가 더 자주 만나야 한다고 다짐들의 첫 실천이다.

처음엔 많은 동기들이 같것 같았는데, 정작 떠나려니 11명이 부부 동반했고, 이창우군 부모님(서울대 마취과 이동식교수님)이 함께 해주셨다. 그래서 모두 24명이 떠난 일주일 여행이다.

이런 Cruise 여행은 우리 동기가 처음 한것도 아니고 그전에 여러 선배 동문들이 했던 걸로 기억되고 그분들이 시계탑에 재미있게 자기들이 보낸 여행을 자랑했던 일이 생각한다.

세월은 흐르고 또 돌고 돌아서 이제는 우리가 멕시코 서해안을 따라가는 배여행을 2월 3일에 떠났다.

Golden Princess는 한 7년쯤 된 배로 크기도 10만톤 이여서 좀 작은 배라고

할수있다. 우리는 일주일동안 5, 6, 7층을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왜냐면 식당, 극장, 라운지들과 중요 시설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다. 여행이 끝날때까지 잊갈리고 방향 감각을 잃었는데 물론 나이 탓은 아니겠지만, 이유는 한층을 앞서 뒤까지 똑바로 갈수 없도록 배를 만들어서 중간에 윗층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수고를 매번 해야 했기 때문이다. 우리 회장이 여행사에 잘 교섭해 group rate에다 방도 발코니가 있는곳으로 예약해서 모두가 바다를 만끽했으리라 생각되고 또 옥상에 sky-walkers Nightclub도 사용하게 해주 매일 배가 바다에 있을때는 오전 오후에 모여서 동문들의 강의(?)도 듣고, 만담이랑 노래자랑도 했고 몇몇은 술도 좀 마셨다.

배 떠나기전 배 회사사람들과 좁나은 장소를 교섭하려해도 막무가내로 옥상을 쓰도록 해줬는데, 결국 우리는 앉아서 바다를 보면서 한적하게 즐겼다고 본다.

저녁엔 재미난 쇼도 봤고 여러군데 춤추는 곳들이 있어서 밤무드를 즐겼다. 모두들 춤 실력이 보통이 아니었는데, cruise를 온 사람들이라 춤은 기본으로 출출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아무튼 우리 동기들이 매일 밤 dance floor를 점령하다시피 해서 좀 과장해서 말하면 배를 탄 2천여명의 승객들은 춤출 엄두를 못내고 구경만하고 있었다.

배는 토요일 오후에 떠나 화요일 아침에 Puerto Vallarta에 도착했다. 그 다음엔 Mazatlan 그리고 유명한 Cabo San Lucas엘 갔다. 일주일 배코스를 억지로 꿰어맞춘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처음 배타는 사람들에게 삼일동안 배가 출렁거리면서 가니 좀 무리 아

닌가 하는 생각이었다. 그래도 아무도 멀미로 고생하진 않았다. 날씨는 생각보다 쌀쌀했고 바람도 불었다. 또 태평양 바다물은 보기보다 몹시 차거웠다. Skywalkers Nightclub은 배끝 18층에 있었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좀 힘든 위치다. 밤늦게 젊은 이들이 디스코 춤으로 흥드는 곳인데 우리는 하루에 몇번씩 올라갔고, 우리 김회장도 열심히 가라오케 기계를 가지고 힘들게 오갔다.

우리는 둘로 나누어 삼일 육지여행에서 골프만 치려는 동문들과 나머지는 함께 육지관광하는 동문들, 그리고 함께 관광을 즐겁게 같이 보내려고 합의도 했다. 실제 관광은 한국서 온 동문들은 어쩐지 모르나 그냥 그랬다. 맥시코니깐... 차라리 골프치는것이 좋았을걸 하는 생각이다.

미리 주최측에서 참석하는 동문들에게 준비를 시켰지만, 정명희 한국동문회 회장은 징기스칸 이야기와 그가 조사위원장이었던 황우석교수 사건들을 아주 재미있게 기초 생물학에서부터 설명해줬다.

김영태동문은 우리가 한국서 무주 리조트여행때 들었던 그 구수한 재담을 다시 듣고 싶어서 부탁했는데, 개성 상인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와 유모, 재치문답을 해서 모두가 조그만 상품타는 재미도 가지게 했다. 오후에는 노래자랑도 하고 간단한 춤 연습도 했다. 온기철동문이 고대 희랍의 한 철학자 이야기(Epicurus)를 한 시간 가량했는데, 프린트를 해오는 열성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나머지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을 새삼 가르쳐주는 시간이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Epicurus학파의 행복론이 갖는 의미를 논하라" 이것이 서울대 입학 면접 구술고사 문제였다.

그리고 양만기 선생(박성숙 동문의 부군이며 정부의 고위직과 은행장을 역임했다)이 아랍국가에 여행담과 경제문제, 요새 문제가 되는 subprime loan, 한국 삼성기업의 비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줬다. 김유식 동문은 옛날 '내사랑 헬렌'이라는 자기 부인과의 사랑이야기를 출간한바 있었던 그 짜릿한 사랑 이야기를 이번에 다시 들려줬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명강의를 들었나보다. 어디 다른곳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기회가 있겠는가? 대단한 연륜이 엿보이는 말씀들인데 우리 모두는 졸지도 않고 재미있게 들었고, 옆에 있던 마나님들이 너무 감격해하는 모습이라 보기가 좋았다. 듣는 사람들이 질문들을 하고 또 다시 한마디씩 일어나 하려해서 말리는 촌

극들도 있었다. 그외에도 내생각으론 우리가 바다 쳐다보며 느긋하게 앉아 너무 심한 입운동들을 했다고 생각된다. 무슨 할 이야기들이 그리 많은지? 저녁식사시간이 즐거웠고 우리는 돌아가면서 앉아서 식사를 했는데, 모두가 사졌다고 나와 테이블에 포도주가 넘치게 됐다. 일주일을 같이 지내니 우리 모두를 너무 정들게 해서 여행을 끝내고 모두가 섭섭하고 눈에 어른거리게 만들었는데, 올가을이나 내년초에 다시 가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언젠가 육지여행하고 오후에 시간이 남아 모였다가, 김유식, 이원택, 김제홍 동문들이 그동안 겪었던 병으로 고생했던 경험담을 들었다.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하고 오래 살려면 어찌해야할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가 오갔다. 의사가 자기병을 고칠수 없는 법, 아편면 빨리 전문의한테 뛰어가야겠다. 그리고 종합검사도 빠짐없이 자주해야 오래 버틸수 있다는 결론이다.

이번 여행에서 빼놓수 없는건 이창우 동문이 골프에 장타를 칠수있는 요령을 자세히 알려준거다. 그 비법을 여기에 소개 안하는게 좋을상 싶다. 이번 여름에 우리만이 드라이버를 300야드씩 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김영철 동문은 일주일 내내 조용히 이야기를 들어줬다. 그의 노래솜씨가 대단해 보였다. 박성숙 동문은 40주년 행사를 일본서 할 경우 참고사항을 이야기 했다.

일주일 배 여행은 어찌보면 너무 짧다. 토요일에 떠난 배가 월요일을 지나 수요일이 되면 거진 끝난거나 마찬가지로 짐싸고 나오게 된다. 그렇지만 배여행같이 시작과 끝이 분명한 것도 드물상 싶다. 그리고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마지막 날은 정신없이 배에서 나와 동기들이 떠나는 걸 못 봤다. 우리는 LA 북장순두부집에서 점심을 얻어 먹고 저녁 비행기로 다시 얼어붙고 눈 덮힌 집으로 왔다.

이번 여행은 우리가 한뿌리에서 나온 동기들이라는 것과 어디에 살더라도 우리의 뿌리를 잊을수 없다는것,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여행후에도 줄기차게 내마음 속을 덮었다.

앞으로 같이 여행할 기회가 많으니 모두들 건강히 잘 지내길 바란다.

끝으로 이번 여행에 물심양면으로 수고한 미주동기회장 김성환, 총무 이원택에게 동기들을 대표해 감사사를 전한다.

## Spring Golf Outing

봄의 연초록 초원에서 공을 날리는 Golf Outing을 마련코자 하오니 동문 제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부부동반으로(아이들도)참석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전 10시부터 wine 박사 이흥빈(63)동문을 강사로 모시고 wine 강의를 계획하오니 일찍 오셔서 강의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물가가 오르고 불경기에 아웃팅 경비도 올랐습니다. 동문여러분들의 찬조를 어렵게 부탁드립니다.

**일 시: 2008년 5월 10일(토)**  
 10am - 11am Wine 강의  
 11:30am - 12:30pm Lunch  
 1pm - Shotgun (10 team 40 golfers)

**장 소: Rivervale Country Club**  
 660 Rivervale Road, Rivervale, NJ 07675

**참가비: \$125 for alumni & spouse**  
**\$ 80 for member and children**

대뉴욕지부 박승용 배

## 원고모집안내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미주동창회지 '시계탑'에서는 동문여러분들의 유대와 결속에서 오는 좋은 회지를 제작하기 위하여 원고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모집내용:**  
 동기 및 동문소식, 지부 소식, 제언과 비평, 수필, 산문, 시, 기행문, 서간문, 독후감, 자녀들의 자랑 또는 소식, 사진, 그림 등의 작품. 특히 전공과목에 대한 새로운 의학 소식 등을 환영합니다.  
 \*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농담골목'에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문원고는 사양하오나 2세대의 영문원고는 환영합니다.

**사양하는 원고:** (1) 종교적인 내용  
 (2) 다른 신문이나 간행물에 이미 게재된 글  
 \* 가급적이 1면이상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보내시는 방법:**  
 학년과 성명은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관계 사진 등을 첨부하여 주시고, 원고는 한글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컴퓨터 사용시는 Word 혹은 아래아 한글을 사용하시고 Floppy Disc도 동봉바랍니다. E-mail로 보내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Damian B. Kim, M.D.**  
 141-30 33rd Avenue, Flushing, New York 11354  
 Tel: (718) 460-5190 E-mail: dkim68@nyc.rr.com

# 2008년 연례 학술대회 소고

대회장 이 중 현(66, 대뉴욕)



사막의 “푸른 풀밭”이란 Las Vegas, 고층 건물이 즐비한 main strip의 라스베가스 근교

에 위치한 Suncoast Resort Hotel에서 지난 3월 16일(일) 부터 3월 20일(목)까지 서울의대 미주총동창회 25차 연례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에 없던 특이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3월 16일 첫날, 라스베가스가 고대하던 비가 내리고 산에는 눈이 내리는 생소한 일이 있었는데 지역민들曰 “貴한 손님들이 오심”이라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고, 의대 미주 총동창회 역사상 최초의 女人天下(회장 최영자(66), 총무 이선희(81), keynote speaker 이길여(57) 선배님, 처음 시도한 합동 class reunion party의 풍성한 열매(259명 이상 참석), 화려하고 우아한 패션 쇼(2명의 동문과 11명의 사모님들, 1명의 Guest)와 다양한 문화 체험(라스베가스 서울합창단 공연,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주일학교 부채춤, Shirley Chen 무용단의 modern dancing 공연) 등이 있었고 class reunion 중 합창회 여의사 회원들의 학창시절을 회고 하는 순서에서는 사회자의 짓군은 “딩동댕”에도 끝까지 소신을 피려한 한혜원(61)선배님의 소녀 의학도의 낮 뜨거웠던 순간들을 들으며 꿈 같은 옛 시절들을 음미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세계 여행 후 오신 강신호(52) 명예회장님은 3일 동안 골프를 치시고 계속해서 저녁 만찬에도 참석하시면서 피곤한 기색없이 “박카스 드링크”를 손수 동문들에게 나눠 주시며 main banquet에서 아주 세심하고 정성 어린 축하 인사를 하였고 또 10,000 불의 격려금도 주셨습니다.

또 서울의대의 영원한 꽃 이길여 선배님은 급성 기관지염으로 약을 복용하는 와중에도 패션 쇼에서 아름답고 화려한 한복으로 우아함을 뽐내셨고 이영인(81) 동문의 고기 입장으로 시작한 main banquet에서 57년 동기이며 세계적 심전도 권위자이신 정구영 선배님의 소개 후 keynote speaker로 선배님의 인생 철학과 지금까지 이문 교육, 의료사업을 수줍은듯, 그러나 결연히 말씀하여 주시어 참석한 모든 동문들에게 자부심과 꿈을 선사 하였습니다. 미주 동창회에 기부금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금년 학술대회는 후배님들의 활동이 괄목하였는데 학술위원장 이영인(86)과 연사에 박종희(75) 81년 졸업 동기들인 남명호, 박근철, 이명식, 한창규와 이관희(82), 김종호(86), 이도은(99) 등이며 무엇보다 미국과 한국의 동문들이 공히 어울리는 학술의 장이었습니다. 그외 동문들의 자녀(Dr. Annette Kim, James Lah, Janet Choi, Judy Lieu)들의 참여로 더욱 풍성한 학술대회가 되었습니다.

Mrs. 김택수(63)의 진정한 자원 봉사로 이뤄진 당일 2시간 왕복의 Red

Rock Park, Prime outlet mall 방문은 뜻밖에 선물이었습니다. 금년 대회 중 서울의 66년도 졸업 동문들이 2,000불 격려금을 보내준 일은 아마 초유의 사건이고 인상 깊은 일이었습니다.

Main banquet에서 김택수(63) 동문이 수고하여, Reception, Class reunion, Talent show 등의 중요한 순간, 순간을 포착하여 만든 사진들을 편집한 DVD를 presentation 한 것도 초유의 사건 중 하나입니다.

Arnold Palmer가 디자인한 Angel Park Golf course에서 3월 17일 Mt. course (105명 참석), 3월 18일 Cliffside course (75명), 3월 19일 High Land Falls Golf course (84명) 등에서 가진 golf outing 은 김은한(66) 골프위원장, 민발식(66) 부회장과 김한기 박사(최영자 회장 부군)들이 새벽 3시까지 준비한 조 편성으로 일사철리 진행되어 3월의 네바다 햇살처럼 빛났습니다. 66년 동기 동문 25쌍이 참석하여 회장 및 집행부의 기쁨이 컸고 탈렌트 쇼에서 '구름새매'를 66년 동기 전원이 합창할 때 모든 동문들이 흡족해 하였습니다.

이번 대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동문들께 감사를 드리며 몇 분들의 성함을 여러분들께 알려 드립니다.

서울에서 동창회 회장 하권익(63) 선배님을 대신하여 오신 윤정철(65) 부회장, 박희백(57) 선배님, 심영보(61) 선배님, 목정은(66) 교수, 이병훈(66) 서울 동창회 부회장, 추광철(66) 교수, 또한 패션쇼에 출연한 이길여(57) 선배님, Mrs. 이종국(58), Mrs. 임영신(58), Mrs. 이만택(58), Mrs. 추재옥(63), Mrs. 윤영섭(63), Mrs. 최준희(64), Mrs. 조규웅(66), Mrs. 이병훈(66), Mrs. 석창호(72), Mrs. 백승원(79), Mrs. 이현자(이종국(57) 선배님의 여제), Dr. 이도은(99), Dr. 한영수(67) 등이며 탈렌

트 쇼에 출연한 이종국(58), 선우건영(63), 박성민(64), 특히 고전무용 선배인 Mrs. 김홍서(69), Mrs. 이원택(71), 백승원(79), '구름새매'(동형근(57) 작시)를 작곡한 조규성 연예인의 3일 동안 계속해서 아름다운 선율과 노래 또한 즐겁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생일을 가족이 없는 라스베가스에서 보낸 우리 사무총장 김혜경 씨, 생일 축하 노래로 대신한 것도 잊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Non-CME program을 준비, 진행하며 귀중한 사진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대금을 동창회 기금으로 기부한 조의열(66) 예술 전시 위원장, 김택수(63) 고문 선배님, 귀한 예술 작품을 준비하여 판매 대금을 동창회 기금으로 기부한 Mrs. 박용길(66), Fashion show coordinator, Non-CME chair, Line dance instructor로 수고한 Mrs. 광승용(71), 초유의 여자 총무로 처음 맡은 일을 유능하게 처리한 이선희(81) 동문, 특히 이 총무는 큰 언니 조경희 M.D., 작은 언니 이주희 New York Life LA 대표까지 온 가족이 컨벤션에 동원되었습니다.

백승원(79) 재무와 이영인(86) 학술 위원장은 본분의 일 이외에 잡다한 허드레 일들을 기쁘게 도와 준 것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300명 이상 참석한 이번 대회의 성공의 원동력은 동창회를 사랑하는 동문들의 정열, 헌신, 봉사,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끝없는 도전이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치밀한 계획, 그리고 강력한 실행력이 있을 때 더 풍성하고 유익한 동창회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 하였습니다.

서울의대 미주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든 동문들의 기정에 화평과 강건함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

## 2008 컨벤션 후기

부회장 광 승 용(71, 대뉴욕)



지난 3월 16일부터 19일 까지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컨벤션에 참석한 epilogue로 끄긴 접을 적어 볼까 한다.

학술대회, 연례 만찬 등은 매년 동창회 회장단이 힘들여 준비하여 내놓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연례행사이기는 하지만 여러 요인으로 성공하거나 실패한 행사로 뒷말이 무성한것도 사실이다. 행사의 성공여부는 첫째, 훌륭한 행사내용(프로그램의 질)과 동문들의 참석도, 더 나아가 동창회 발전에 기여하는 행사(theme 등) 여부, 대차대조표에 이익이 나는 행사에 달렸다고 한다면 이번 행사는 여러모로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번 컨벤션을 위해 대회장인 이중현(66)동문님과 최영자 회장님의 주도에 하여 뉴저지 대원에서 많은 시간을 머리를 맞대며 행사의 성공을 위한 노력에 몇 달을 보냈다. 동문들의 즐거운 시간을 위해서,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서, 격 높은 science session을 위해서, 좀더 재미있고 다양한 non science session을 위해서, 자금조달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며 컨벤션을 준비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분들의 희생과 노력에 머리가 절로 숙여지면서 한편으로 행사에 참석하는 동문들께선 이런 노력의 일부나마 감지할 수 있을지

하는 아쉬움도 있었다.

드디어 3월 16일이 되고 라스베가스의 Suncoast Hotel에는 동문들이 모여 들었다. 준비팀들의 조마조마한 마음은 과연 많은 동문들이 참여하여 성공적인 행사이길 기원하면서 등록과정을 지켜보았다. 첫날 동문들의 참여는 큰 성공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였다. 오전의 science session과 건너편의 non science session, 오후의 golf session, 저녁의 동기모임, 장기자랑, 마지막날의 메인 방채 등 매분, 매시간 진행과 보살핌과 열려가 따르는 일이었다. 특히 민발식(66) 부회장의 자상한 보살핌으로 진행이 순조로웠다. 총무 이선희(81), 재무 백승원(79) 동문들의 발로 뛰는 봉사도 눈에 띄었다. 실제로 science chair 이영인(86)동문과 함께 이번 행사에 엔지니어 역할을 담당하신 분들이었다.

또한 빼놓을 수 없었던 즐거움은 오랜만에 만난 동기(71)들 이었다. 마치 다시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간듯 20대들이 되어 뉴욕 뉴욕 호텔에 부동반으로 섹시한 쇼도 거금 일인당 120불씩 내고 관람했고(사실 끝나고 돈이 좀 아까웠음), 반가운 얼굴, 반가운 목소리, 그동안 지내온 이야기들로 시간가는줄 몰랐다. 오랜만에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일과를 벗어나 오직 먹고 마시고 즐기고 좋은 강의 듣고 골프치고 춤추며 보낸 4박5일은 종교적인 천국과 비길만 하지 않은가. 아쉬운 점은 우리 동창들이 모두 세월을 거슬리지 못하고 나이들어 가는데 이런 가운데에는 노익장을 과시하시는 동아계약 회장 강신호(52)동문님과 이길여(57) 여사님 등등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 동창회에 젊은 후배들이 계속 수혈이 되고 많은 동문들이 더 많이 참석하여 무궁히 발전하는 동창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Las Vegas Convention에서의 합춘여의사회 동향

총무 최 선 희 (81, 대뉴욕)



이번 라스베가스 미팅의 한가지 특징은 예년보다 여성 동문의 참여도가 높았다는데 있다. 역대 최초의 여성 회장 최영자

회장님, 또 서울의대동창회 그리고 합춘여의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신 이길여 선배님(keynote speaker), 게다가 한혜원 선배님(간염), 박종희 선배님(면역학), 남명호 동문(Laboratory Medicine) 그리고 이도은 후배(당뇨병)들의 강의내용은 참으로 학술적으로 아주 훌륭했고 이번 미팅의 scientific session에 많은 자부심을 갖게 해주었다. 또 최혜숙 선배님은 본인의 오랜 통찰과 연구 끝에 얻은 건강 요법강의를 scientific and non-scientific session에 두 번이나 해주셨다.

본인은 둘째날 신경학 그리고 molecular medicine session을 University of Pennsylvania의 한창규 동문과 함께 진행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게다가 한혜원 선배님의 발상으로 첫날 class reunion 때 학창시절을 되돌아보는 회고담을 한마디씩 하는 기회도 주어 많은 남성동문들과 함께 수십 년만의 회포를 풀고 웃어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길여 선배님은 둘째날 패션쇼에도 참여를 하여 우아한 한복의 미를 보여 주었고 이도은 후배는 멋진 코트 안의 드레스를 과시하는 그

야말로 TV에서 보던 모델들을 뺀치는 talent를 보였다. 점심식사나 또는 저녁 디너파티때 시간이 있는대로 합춘 여성회원들과 시간을 같이하고 대화를 하였고 선배님들의 노력, 배려로 서로를 알게되는 기회가 생겼다. 놀라운 것은 많은 선배님들께서 학술활동, 가정생활 이외에 community 활동에 맹활약 하시고 계시다는 것이다.

한혜원 선배님은 '필라여성'이라는 필라델피아 여성회 한국가정법률 상담소 지부 창립20주년 기념책자(over 250pages)를 선물로 내미셨고 박종희 선배님은 세종문화회(www.SejongSociety.org)라는 주로 미국에서 자라나는 한국 2세를 위한 cultural society를 소개하시고 최근 writing competition에 뽑힌 글들이 실린 책을 선물로 주셨다.

짧고 정신없이 지낸 며칠이지만 집에와 남편과 함께 한혜원 선배님이 만들어 주신 opera CD 를 들으면서 벌써 지난날 라스베가스에서의 만남들이 그리운 추억이 되어 있음을 느낀다. 이렇게 훌륭한 합춘여의사회 선배, 후배, 동문이 같이하는 컨벤션이었기에 이번 학회는 더 의미 있었던것 같다. 무엇보다도 한번도 동창회에 나가본적도 없는 나를 격려하고 이끌어 주신 최영자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게도 불구하고 남편 김익제 동문과 함께 참석해주고 이번 학회에 speaker를 초청하는데 도움을 준 남명호 동문에게 감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한국식당으로 데리고 가는 직무를 맡아 곤욕을 치루신 Kim Young Oh Huh 선배님 부부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번 미팅에서 잘 알 기회가 없었던 많은 선배님들께 훗날에 기회가 주어질 것을 바라는 마음이다. 더불어 2세 여성 연사들, Janet Choi, Annette Kim, Judy Lieu 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25차 컨벤션에 다녀와서

이 만 택(58, 펜실바니아)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라스베가스에서 있었던 미주 동창회 25차 컨벤션은 좋은 모임 이었다는 동문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하여 난필을 들어 본다.

동문 140명과 연사 및 동문 가족까지 합하여 300명이 참가한 큰 모임 이었다.

1952년 졸업 강신호 회장님을 비롯하여 2002년 졸업 허원제 동문까지 두세대가 모인 화합의 모임 이었다.

특히 4명의 2세가 연사로 참여하여 학술대회의 새로운 문을 열었다고 하겠다.

80년대 졸업 6명과 2000년대 졸업 2명의 동문이 연사로서 강의를 한 것은 전에 없던 경사가 아닐수 없다.

지난 수년간 동창회의 앞날에 관하여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동문 회원의 평균 연령이 60을 웃돌고 후배들이 오지 않고 보면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80년대 졸업 동문 40명, 90년대 졸업 동문 14명, 2000년대 졸업 동문 13명 (2006년도 동창회 명부 참조)을 보면 동창회 앞날에 희망이 보이는 것 같다. Green Project 와 Intern, Resident 자리 알선에 동문 모두가 정성을 드린다면 앞날은 더 밝아지리라 믿는다.

### 서울의대 동문님들의 저력

정 정 수(62, 후로리다)



작년 뉴저지 이사회 때 최영자 회장님과 이종현 대회장님들의 걱정 격려만 하든 라스베가스 서울의대 연례학술대회에는 은퇴하여 후로리다에 살고 있는 나로서는 전직 회장의 반 의무감으로 참석했는데 내일생 가장 즐겁고 감명스러운 축제를 지내고 너무나 유익하고 추억에 남는 동문 모임을 가졌다.

은퇴했는데 무엇을 배우라 하고 학술대회에 참석했는데 새벽 6시반부터 하는 강연장에는 강신호 선생님, 이길여 선생님 등 강연장을 꼭 배우는 광경은 과연 서울대생이라는 자부감을 일으켜 주었다. 2세 동문님들의 그 유창한 영어, 날카로운 강의는 너무 자랑스러웠다.

우선 매일 160~250명이 넘는 많은 동문님들의 참석, 특히 예약없이 들이닥치는 동문님들로 즐겁고 당황한 비명을 지르면서도 최영자 회장님 부군님과 모든 임직원 부인님들 김혜경 본부 사무총장님들의 훌륭히 잔치 치르는 솜씨와 노고에 정말 감사한다.

이 성공적인 모임은 최영자(66) 회장님, 이종현(66) 대회장님, 이영인(86) 학술위원장과 그의 가족의 희생적인 노력과 임원들의 봉사로 이루어진 것이라 믿는다. 특히 이 모임을 위하여 김택수(63)동문의 불철주야 희생적 봉사에 고개 숙여 감사 드린다.

참가별 동기 현황을 보면 66년도 24명, 63년도 15명, 64년도 12명, 58년도 10명 62년도와 67년도 각각 8명, 57년도 7명의 순이다. 이 기회에 각 년도의 Class Reunion을 겸한다면 좋을것으로 생각된다.

학술대회 강의 내용도 최신 의학을 소재로 하여 새로운 지식을 소개하여 주어 좋았고 Non-CME Session도 많은 참가자가 즐기는 것 같았다.

연사 34명이 3일간에 강의하였다. 연자들의 주목같은 20분의 강의의 이었으나 시간이 부족한 것 같이 보였다. 이 점을 다음 학술대회부터 고려 해주었으면 한다.

좋은 일기에 매일 80명의 golfer들이 참가하여 친목을 도모하여 즐겨 인상에 남는다. 김은한(66) 동문의 봉사에 감사 드린다.

주최자의 기지로 새로 등장한 패션쇼는 인기 있는 즐거운 행사로 장타를 쳤다. 장기 자랑도 프로에 못지않는 연기를 모두 즐겼다.

성공적인 모임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최자와 참가자가 합심하여 노력하여 일워지는것 이라고 하겠다. 그런 뜻에서 참가한 동문과 가족에게도 치하 드린다.

특히 적자를 내지 않으려고 알뜰한 살림을 한 주최측과 대금을 회사하신 강신호(52) 이길여 (57) 두 전 회장님께 감사 드린다.

25차 Convention은 많은 80년도 이후의 동문 참여와 2세들의 참여로 동창회의 앞날에 희망을 주는 모임 같아서 마음이 흐뭇해지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8년전에 내가 살던 펜실바니아 동문 집에서 주무시고 우리 Saucon Valley Country Club에서 한기현 동문과 백구를 날리시고 간 강신호 회장님은 매일 정정하게 골프 치시고 한국경제인협회라는 큰일 하신 경험담 한국경제 강의까지 해주시고 은퇴동문만 만원이 되어 빈주머니 되어가는 우리 동문회에 1만불이라는 거금을 보태주시고 가신다. 그때 찾아왔던 강동문님 동기님은 80세의 고령을 이기지 못하고 치매로서 안타까운 여생을 보내고 있으니 내 마음은 더욱 착잡하다.

해마다 오셔서 거금과 격려주시는 이길여 회장님은 여전히 소녀같은 동안으로 동창회의 발전사를 사진영상으로 담아 보여주고 화려한 특수한복까지 준비해서 패션쇼를 장식하고 전통한복을 입은 남자 동문, 이만택, 임영신 젊은 사모님들도 기막히게 아름답게 차려입고 귀여움을 토했다.

이종현(66) 대회장님은 회장단 최영자(66)를 비롯해서 절대다수의 참석을 기록하고 63년도도 45주년을 맞아 많은 분이 참석했다. 이종현 동문의 사회 솜씨는 기가 막힌 프로급이었는데 갑자기 엘비스 프레슬리가 되어 side burn까지 달고 변장해서 긴 노래를 밴드에 맞추어 부르며 하는 춤동작은

### 뜻 깊었던 학술대회

한 해 원(61, 펜실바니아)



Dear Dr. Choi: 매번 committee 모임 때 참석하지 못함을 용서해주세요.

보내주신 사진들 잘 받았습니다. 그 사진들이 즐거웠던 그날 저녁을

상기시켜주었습니다. 이번 의대학술대회는 여러가지로 뜻이 깊었습니다.

미주서울의대동창회 및 학술대회행사가 생긴 이래 역사적으로 늘 서울의대의 minority(?)였던 여학생(동문)이 처음으로 회장을 맡았다는것, 그 학년(66)에서는 여학생 2명이 졸업하고 그나마 현재는 혼자서 계셨었는데 이번 학술회 때 그 동기 남학생들(동문)이 그렇게 열심히 동조해서 학술회를 훌륭하게 진행해 주셔서 아주 보기 좋았던 사실입니다. 학술회 및 non-CME activity와 골프행사 그리고 저녁마다 있었던 행사들의 대체로 옴 등 놀라웠습니다.

저는 시간 관계로 마지막날 저녁에 있었던 Banquet Dinner에 참석을 못하여서 꼭 듣고 싶었던 이길여 선배님의 life story를 놓친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그러나 그 전날에 주셨던 이길여 선배님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이분의 그 많은 찬란한 업적들의 밑바탕에 흐르는 theme은 궁극적으로 환자에 대한 사랑 바로 그것이었음을 깨달았고 그것이 바로 이분의 인생철학, 특히 의사로서의 본체라는것을 알수 있어서 감격하고 기뻐지요.

이번에 최영자 동문이 회장을 맡으시면서 서울의대 여학생 동문들을 많이 규합하려고 애쓰셨던 것도 치하드립니다. 그 노력으로 이번에 전보다는 더 많은 여학생 동문들이 모였고 특히 이번 총무로 수고하셨던 이선희 동문(81)의 알선으로 젊은 우리 여동문들이 몇분이나 참석해 주셨고 앞으로 이 학술회 모임을 다른 젊은 동

문 장내를 웃음과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디트로이트 헨리포드 병원에서 수련을 끝내고 영주권을 따겠다고 미국 영토 버진 아일랜드로 떠나면서 막수련의로 이사 들어오는 고 김홍섭 동문부인 이회련 씨에게 우리 아파트와 가구를 다 물려주고 왔는데 이번에 새 부군 김택수 군과 너무 재미있고 아름답게 여생을 보내는 보금자리도 찾아가서 보고, 내가 나온 우리 시골 부산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 입학시험에서 전체 수석합격으로 우리 모교 고등학교를 빛낸 박형돈 선배님도 만나고 저녁대접까지 받았으니 너무나 감사할 뿐이다.

특히 김택수 동문은 라스베가스에 거주하고 너무나 다방면에 multi talent을 가지고 있는 후배라 이번 대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부부가 매일 수고해 주셨고, 우리 62년 동기회를 본 대회 4일전부터 하기로 하고 오대요 동기회장이 준비하는데로 알선해주고 도와주었다. 그 유명한 사진솜씨로 찍어낸 DVD가 나오기를 고대하고 있다.

우리 62년 동기회는 오대요 회장부부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진흥우,

문들과 함께 계승해 주실 가능성을 보여 주셔서 힘이 났습니다.

이번에 우리 여동문의 자랑이고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신 이길여 선배님을 Keynote speaker로 모신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었고 젊은 여동문들이 모두들 speaker로 나오셔서 깜짝 놀랄 정도의 악센트 없는 영어로 강의해 주신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현재는 minority에서 벗어났지만 60-70년도 졸업할 당시까지는 지독한 minority로 6년을 지냈던 여학생시절의 어색하고(?) 힘들었던 경험을 동기생과 동문들 앞에서 풀어 놓을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학술회때 발표했던 여러 제목들이 더 update 되었고 새로운 분야들이 많이 나와서 흥미로웠습니다. 많은 speaker들을 동원하셨기 때문에 20분만의 시간이 할당된 이유로 많은 slides를 준비하셨다가 다 발표 못하시고 급히 강의를 끝냈으면 감사님들의 노력이 아깝게 느껴졌지요.

이번에도 늘 고맙게 참석해주시는 여러 대선배님들을 뵈어서 든든하게 느꼈고 특히 매년 한국에서 꼬박꼬박 참석하셔서 강의마다 열심히 경청하시던 강신호 선배님이 지난 몇년간 한국에서의 중책으로 참석 못하셨는데 이번에 다시 와주셔서 참으로 반가웠지요. 강선배님을 위시하여 선배님들과 특히 한국에서 오신 선배동문들이 jetlag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성으로 강의도 해주시고 강의에 참석하시던 모습 인상적이었습니다.

학술회를 맡으셨던 이영인(86)동문, Elvis Presley로 나오셔서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Elvis 처럼 노래를 불러서 깜짝 놀라게 했던 대회장 이종현(66) 동문의 능숙한 행사 진행, 골프대회를 맡으셨던 김은한(66)동문 그리고 총무로 수고하신 이선희(81)동문 등 모두 훌륭하게 해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최영자 동문의 leadership 과 dedication 그리고 그 동기분들의 희생적인 노력이었습니다. 자기 전공이 아닌 다른 분야들의 최신 소식을 조금이나마 배우게 할수 있게하는 학술회에서 많이 배우고, 서울의대 여학생이었던 사실을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흐뭇한 마음으로 귀가했지요.

다시금 행사를 맡아 수고하신 동문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용길, 정정수, 김경옥, 조명호, 박진수, 김한중 부부들이 참석해서 이제 늙어서 골프는 조금 치고 쇼 보고 마지막날 오대요 회장 부부가 한국식당 신라에서 거하게 한턱 쏘아서 마음껏 취했는데 매년 참석해서 기쁨을 토하던 김경옥 동문 남편 허선생께서 건강타인지 술이 많이 약해지신 것이 안타까웠다. 작년에 하와이에 처음으로 나타난 동문이 반갑게 맞이했던 이영용군은 쇼 보기에 바빠서 참석을 못했다.

우리 62년 동문 친구들이여! 이번에 만장일치로 뽑은 새회장 박진수 군이 내년 9월 4일 아름다운 시애틀에서 2박3일 정도 멋있는 동기회를 계획하고 Mt. Renier, Mt. Helen, Cvter Lake, Victoria Island, Vancouver 등 서부의 많은 아름다운 곳을 선택연장 관광할 수 있으니 우리 모두 건강해서 아프기전에, 죽기전에 몇 번 더 만납시다.

끝으로 자랑스러운 미주서울의대동창회의 앞날에 축복으로 활발한 활동과 우리 동문에 유익한 단체가 되길 빌고, 우리 동문님들 가내제절에 축복과 건강이 있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 2008 컨벤션 화보: *Class Reunion*





# Banquet and Talent Show



개동철학

2008 동창회 후기

김택수(63, 라스베가스)



일년여의 준비 기간후 드디어 3월 16일에 라스베가스에서 25회 북미주 동창회 학술대회가 예년보다 훨씬 많은 회원이 참석하 가운데 성대히 개막되었습니다. 그동안 회장단들의 끊임 없는 노력과 치밀한 계획의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

다. 라스베가스에 우리 동창이 모두 일곱분이 계신데 63년도인 제가 막내이니 젊음을 다시 찾은 기분입니다. 금년도 회장단이 뉴욕지구이고 보니 현지 '상황탐지자'가 필요하게되고 막내인 제가 선택된 것이지요.

제가 라스베가스에 이사온지 2년 5개월이 되는데 그동안 다녀간 손님이 무려 100 사람이 넘습니다. 물론 제가 초대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오며가며 들린 것이지요. 지금은 만나 보게되어 반갑고 좋으나 어느날 귀찮게 느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까를 지금 생각중입니다.

누가 전화를해서 언제쯤 라스베가스에 온다고 하면 우선 환영하는 인사를 해놓고는 한숨을 아주 크게 수화기대고 쉬고는 왠 "어찌지 그때 우리 한국에 가는데"(농담).

좌우지간 현재론 힘 안들이고 많은 사람을 만날수 있음을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62년 동기들이 3일전에 오기로 했다고 골프와 종교도 쓴 호텔을 교섭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잘 해놓았으나 생각보다 적은 인원이 참석해서 아쉬운감이 없지 않았습니

다. 예년에는 일요일에 체크인해서 일요일에 체크아웃하는 것이 상례였으나 주말의 호텔값이 평일의 곱이랴것을 감안해서 일요일에 체크인하고 목요일에 체크아웃해서 비용을 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골프대회도 같은 맥락에서 비용을 많이 줄일수 있었습니다.

라스베가스의 중심가는 Mandalay Bay Hotel에서 시작해서 Stratosphere Hotel and Casino에 이르는 6 마일의 Las Vegas Blvd. 입니다. 이 6마일 구간을 The Strip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동창회는 왜 off the Strip인 hotel 에서 갖기로 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진 동문을 위해서 간단한 설명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그 이유인즉 우리의 일정은 아침 6시에 시작해서 저녁 11시에 끝나고 주행사의 하나가 골프대회인데 골프장이 멀면 저녁때 행사에 많은 지장이 있었던 경험을 살려 골프장에서 가까운 호텔을 구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첫날 non-golfer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근교에 위치한 Red Rock Canyon 관람과 셋째 날 Premium Outlet Mall



시집가는 큰누이 이길여 선배와 섹시한 들러리들

관람도 여행사에 맡기지 않고 이미 빌린 버스를 사용하고 가이드와 '전속 사진사'도 제 아내와 제가 맡아서 한 것도 만족하지는 못했는지 모르지만 알뜰한 회장단의 배려라 간주 됩니다. 가이드하며 읊은 저의 자작시 한수를 여기에 올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이세상에 태어나는 날도 '오늘' 이었고  
아직까지 살아온 깨알처럼 많고 많은 나날들도 '오늘' 들이었고  
내 이세상 마지막 하직하는 날도 또한 '오늘'일텐데  
잡힐듯 잡힐듯 잡히지않고 울듯 울듯 오지않는 내일을 기다리는  
어리석음 이젠 그만 접어두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지

사진사를 구하라는 회장님의 지시가 있었으나 제가 아는 우리 카메라 클럽 멤버들 이때 마침 만발한 Desert wild flower를 촬영차 대거 부재중이라 구할수가 없어서 골프대회 하루를 제외하곤 제가 조의열(66)동문과 사진을 찍기로 하였었습니다.

제가 찍은것이 무려 2100장이나 됩니다 (가지 수론 그 반이기는 하지만). 내용을 모르는 전문사진사보다는 친분이 있는 우리 동문들을 제가 직접 찍으니까 이로온 점이 더 많았다고 사진들을 직접 보신후에 생각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찍으려고 노력은했으나 모르긴해도 빠진 분이 물론 계시겠지요.

특히 부부끼리 모처럼 아주 다정한 모습으로 포즈하도록 하고 많이 찍었는데 기회를 놓친 분들은 아마 아쉬워할 줄로 생각 됩니다. 자기 사진이 마음에 들어 프린트를 원하는 경우 custom made(satisfaction guaranteed) 로 해드릴 수 있으나 장학기금에 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모르는 분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으나 방법이 생키리라 생각합니다.

그 1000여 가지나 되는 사진을 골라 edit해서 사진같은 사진을 만들어 내니 한 450장이 되는데 또 할일은 DVD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DVD를 완성하기 까지는 근 일주일나 걸렸습니다.

이 DVD에 서울대학교 교가를 넣고 싶은데 어디서 구하나 여기저기 수소문 하다가 생각끝에 서울대학 website에 한번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www.snu.edu.kr이면 되겠지 했는데 잘못된 주소란 경고만 나와서 궁리끝에 'edu' 대신 'ac'를넣어 www.snu.ac.kr 라고 했더니 우리 서울대학교 website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거기서 교가를 퍼오게 된것을 이제는 재미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시의 마지막 구절인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지"를 실행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작자 하면 어떤 사람은 늙은 얼굴 찍어 무엇하느냐고 사양하는 사

환상의 라스베가스

추재욱(63, 대뉴욕)



환갑잔치도 제대로 대접 못 받고 10년 이 훌쩍 지난 다음에야 칠순이 되어 이곳 라스베가스에 모인

우리 동기들은 졸업 45주년 기념과 더불어 환상의 합동 교회 잔치를 치루었다.

멀리 한국에서 온 김병준 군은 자기 수필집을 한권씩 나누어 주었다. 평생 외과의로서 많은 불쌍한 환자들을 보살피고 살려낸 그의 진솔한 인간성을 엿볼 수 있었다.

매년 신타크로스 할아버지처럼 무거운 선물 보따리를 잔뜩 메고 오셔서 우리들에게 손수 나누어 주시는 강신호 선배님, 눈코 뜰새없이 바쁘신데도 손오공의 축지법을 써서 수천만 리를 순식간에 드나드시는 우리들의 영원한 누님 이길여 선배, 아직도 청청한 꿈을 가지고 계시는 더 큰 프로젝트를 보면서 벌써 은퇴해버린 우리 후배들은 무색함을 느꼈다.

미인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멀리 후로리다에서 비행기를 두 번씩이나 갈아타고 오신 이종구 선배의 여동생 이현자 여사의 아름다움 패션 쇼.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호텔로 밀려드는 놀음꾼들을 피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meeting을 개최함으로 250불 짜리 방을 75불에 싸게 예약해서 호

화스러운 방에서 여왕처럼 대접을 받았다라는 내 roommate, 특히 내 방은 18층 골프 코오스가 환히 내려다 보여 환상적이었다. 10불만 내면 산해진미의 푸짐한 음식을 마음대로 가져다 먹는 뷔페식당.

라스베가스 시내 벨라지오, 시저스 등 대규모 맘모스 호텔 내부의 아름다운 조각들과 분수들, 없는 것 없는 무궁무진한 샵핑 몰, 여자들은 모두 함박만한 웃음꽃을 피우며 윈도우 쇼핑에 여념이 없다.

과리의 에펠탑, 뉴욕 뉴욕 등 대도시의 명물을 축소해 놓은 miniature 거리들이다. 큰 호텔 중심가에는 따뜻한 햇볕을 찾아 전국 각지 사방에서 모여든 인파로 인해 북적거렸다. 젊어서 다녔던 대도시를 가볼수는 없어 눈요기만 하라는 얘기가.

매일저녁 장기놀이, 노래자랑, 패션쇼를 진행하며 지루하지 않게 명사회를 해준 이종현 군은 엘비스 프레슬리의 상표인 귀밀 기다란 구렛나루하얀 나팔바지를 입고 그의 특유한 vocal vibration을 생생하게 흉내내어 많은 갈채를 받았다. 우아하고 멋진 몸매로 line dance를 지도해 주신 Mrs. 광승용. 라스베가스에서 이쁜 새악씨와 별장지대에 사는 김택수군의 지칠 줄 모르는 정력과 헌신적인 봉사에 특별감사. 어부인 회장님의 뒤치다꺼리를 맡없이 맡없이 보필하느라고 뺨살이 썩 들어가버린 Robert Kim 박사. 입술이 부르트도록 혼자서 빈틈없이 준비를 해온 동창회 혜성 김혜경 양.

지난 일년동안 한달이 멀다하고 자주 미팅을 가졌던 staff들과 십시일반 도와주신 여러 동문들. 혼신의 힘을 합한 회장을 보필함이 없었더라면 이 아름답고 환상적인 만남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었을까.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주관해온 후덕한 우리 최영자 회장님께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졸업한지 벌써 45년이 지난 63년 동문들

랍도 생각보다 자주 접하게 되는데 "지금 이 시간이 당신 생애에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라고 말해주곤 하지만 '내일'을 기다리는 사람에겐 별 의미가 없을거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3년후에 보면 틀림없이 "그 땐 참 젊었었구나" 할텐데.

여기에 얼마전에 아내에게 바친 시 한 편을 실는데 동창회를 치르면서 시 속의 '당신'이 우리 동문 한 분 한 분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입니다.

당신을 위해

효자손 찾다 찾다 못 찾아 등 굽어 줄 사람 찾을때 그 사람이 바로 나 였으면 좋겠다 난 당신을 위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소

목이 몹시 말라 시원한 샘물 한 동이 길어다 줄 사람 찾을때 그 사람이 바로 나 였으면 좋겠다 난 당신을 위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소

몹시 슬퍼 누굴 붙잡고 통곡하고 싶을때 찾는 사람이 바로 나 였으면 좋겠다 난 당신을 위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소

시원한 봄바람 솔솔 불어 같이 손 잡고 산보할 사람 찾을때 그 사람이 바로 나 였으면 좋겠다 난 당신을 위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소

내가 느끼는 편안함 그대로 당신에게 편안한 안락의자가 되고 싶소 포근한 마음 전해주는 따스한 안방 아랫목이되고 싶소 당신을 위해.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빌며.

라스베가스에서 少樹 김택수(63)

# 독백(獨白)



김 정 준  
(52, 대뉴욕)

흘러간 세월이 어느덧 80년이 되어 간다. 그러저러 오래 지탱한 셈이다. 그런데 지금도 나의 마음속에는 향기로운 화초가 피고 있다.

주일날에는 아침 일찍이 교회에서 모이는 신학독서회에서 한 시간을 보내고 이어서 성가대 '베이스' 멤버로 연습에 참석한다. 매 수요일 저녁은 두 시간 동안 성가대 연습이 있다. 이러한 과정으로 하루 하루가 쌓인 것이 지금이다.

나의 소년시절은 고향 함북(咸北) 경성의 조그마한 시골 교회로 돌아간다. 불교 가정에서 자라난 나는 스님과 보살님들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자랐다.

1945년 늦은 여름철이었다. 어느날 노을이 짙어가는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은은한 혼성 사중창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황홀해서 그 소리를 찾아 교회 옆 창가로 다가 갔다. 석유 납포볼 아래 목사님과 성가대원 셋이 주일날 예배를 위해 노래를 연습하고 있었다. 그 곡은 '내 주를 가까이'였다. 그 사중창의 화음의 아름다움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서울의대 예과에 다니던 나는 기독교인으로 세례를 받고 1952년 부산에서 집사 안수를 받았다.

1949년 1월 31일에 나는 전재금을

처음 만났고 1955년에 우리는 결혼을 하였다. 예과시절에 성종(聖鐘)합창단에 가입하고 1948년 부활절에는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바하의 마태 수난악이 서울정동교회에서 공연되었다. 그때 그 수난악을 필자가 번역하고 단장인 곽상수 씨와 같이 adaptation을 한 것이다. 그후 김발봉 여사(未來 장모님)께서 내게 마태라는 별명을 지어 주었는데 그때부터 나는 마태로 불리어 왔다.

1966년에 지금 다니는 장로교회에서 장로안수, 장립을 받았다. 당회 시무후 6년동안 집사로서 교회를 섬겼고 아직도 성가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 교회는 아주 작은 소수의 교회인지라 장로가 임기 6년이 지나면 집사로도 시무한다. 그리고 다시 장로직을 맡기도 한다.)

오랜 교회 생활을 해 왔는데 내 생각들이 세월처럼 많이 변하게 되었다.

우선 전통적인 교회는 재정리 되어야 한다고 본다. 나는 새로운 시각(靚覺)의 싹이 트이는 것을 느낀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때 그 자들이 그 문화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과의 역사를 기록한 문서이다.

理性은 믿음의 전제 조건이다.

이성이 없이는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의 사랑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성이 함께하지 않는 종교는 미신에 가까운 것이 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성을 무시하는 믿음은 자기 파괴를 조성하고 인간성을 말살시킨다.

Suicide Bombers의 순교자들이나,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 전쟁을 시작한 이 나라나 양쪽 다 이성이 상실된 망신(妄信)의 상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십자가는 두 가지 상징을 나타낸다. 그 하나는 개개인의 믿음과 구원의 길을 가르치고 그 다른 하나는 사회적, 정치적인 정의(正義)의 길을 보여 주는데 있다. 예수는 이 둘 중에 어느 것도 경시(輕視)하지 않았다.

十子架上的 죽음은 그 당시의 로마 정치체제와 기존 종교의 허위를 고발

하고, 그 정치에 반항했기 때문에 주어진 형벌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믿음과 부활만 생각하고 십자가의 또 다른 의미, 즉 사회적, 정치적 정의를 묵살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절반만 받아들이는 격이며 완전한 기독교 신앙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어머니 당신의 향기

이진화(Mrs. 이영균 67, 위스콘신)

몇 년 동안 빛도 못보고  
처박혀있던 천들을 꺼내 색깔을 맞추고,  
달력종이에 본을 떠 만든 색동커버는  
당신의 흔적입니다.

손자 결혼 후 가져온 장미꽃을  
거꾸로 메달아 말린 후  
여기저기 구석에 메달아 놓은 장미다발은  
당신의 모습입니다.

예쁘게 물든 단풍잎을 가져와 책갈피에 끼워 말린 후  
타자위에 가지런히 놓아둔 오색의 단풍은  
하얀 머리 소녀, 당신의 마음입니다.

미국에 2개월 있는 동안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보며 노트에 메모 해둔 글은  
당신의 믿음입니다.  
떠나가면서도 눈물보이지 않고  
안심시키며 애써 짓는 웃음은  
당신의 사랑의 향기입니다.

이제도 늘 당신의 사랑받는 작은 아이로 남아  
흰 눈이 쌓이듯 당신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오늘도 소복소복 쌓여갑니다.



# 새 서울의대 동문 홈페이지 (WWW.SNUCMAA.US)로의 초대장

서울의대 동문 제위:

1. 서울의대동문 홈페이지(website)를 새로 열었습니다. 419 기년을 겸해서 4월 19일 2008년부터 정식으로 공개했습니다. 미주동창회의 급한 광고 사정 (남미여행건), 시계탑의 출간마감, 미주 의대동창회 간부모임이 임박된 긴박한 사정에 따라, 아직 완전히 완성은 안되었으나, 그런대로 쓸만큼 작동되어서 우선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건설/향상이 이루어질것 입니다.

2. 새로운 홈페이지를 열게된 동기는, 현재 미주동창회의 website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거기에 현재 인터넷에 범람하고 있는 스팸성 porno 게재물을 방지할수 없는 상태로서, 재 수리/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어, 미주동창회의 부탁을 받은바 있기 때문 입니다. 또 한가지 이유는 의대 계통의 website을 보셨으면 아셨겠지만, 모두가 학교, 학문, 연구, 관직, 그리고 권위와 형식중심으로, 그 테두리 밖에서 살고있는, 교수나 학자가 아니고 큰 감투쓰지 않은 대부분의 동문들 (우리의 90% 이상)과는 아주 거리가 먼 상태 입니다. 여기에 의학이나 상아탑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인간성을 위주로하는 홈페이지를 구성해보고 싶었던 동기도 있습니다.

3. 새 홈페이지의 운영자/제작자는 미국 시골에 사는 서울의대 동문 개업의 사로서 이름없이 존재하기를 원하니,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이 홈페이지의 먼 장래를 위해서 조용히 혼자만 알고계십시오. 그의 희망은 동창회나 동문들에게 부담이나 조건이 전혀 없는 홈페이지를 유지하는것 입니다. 미흡한 실력으로 겨우 만든 홈페이지지만, 관용을 베풀어 주시고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4. 한가지 동창회에 바라는것은, 운영자의 제한된 시간관계로 시계탑 게재와 동창 명단의 실시간 (real time) 업데이트를 부탁드립니다.

5. 이 새 홈페이지는 우선 실험적 상태로 두고 급된 12월까지 운영해보서, 충분한 동문들의 참가가 보이면 계속 유지할 것이며, 이름만 존재하는 홈페이지가 된다면 12월에 폐쇄할 예정입니다.

6. 당분간은 이 홈페이지는 한사람의 운영자에 의해 관리되지만, 실력이 양성되는대로, 운영진을 구성해서 그룹운영 예정입니다.

7. 이 홈페이지에서는 멤버의 회비나 운영자금의 현금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다른 종류의 모금운동도 대행해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8. 홈페이지 동문들에게 해롭게 생각되는 게재물이나 코멘트는 운영자의 절대적 판단에 따라서 무단 삭제/변경될 수 있습니다.

### The Mission Statement (사명 개요):

a. 수 많은 의대동문들 사이에 존재하는 가로 (지역, 분과, 취직상태)와 세로 (졸업년도, 나이)의 장벽을 초월해서, 전부가 하나의 가족이나 친구로 모

여서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따라서 이 홈페이지에서는 상하, 좌우, 또는 가로나 세로에 대한 특별대우는 없다. 모든 동문들은 이 홈페이지에서는 한 반 (One single class of Medical Alumni)에 속한다.

b. 학구적이거나 직업적인것 보다는 인간적, 교양적, 현실 생활적인 면을 가능한 많이 반영한다.

c. 미주 서울의대 동창회 (또는 다른 의대동문기관)의 디지털 정보교환 장소 (디지털 시계탑과 동창회 명부)로 사용할 수 있다.

d. 동문들은 물론 그들의 가족에게 참가의 자격을 준다. 그리고 의학도가 아니라도 초청된 손님들에게도 기회를 준다.

이 홈페이지는 비록 미주동문에서 유래되었지만, 범세계적으로 어느 나라, 어디에 사는 동문이건 간에 모두 회원으로 참가할 수 있다.

e. 이 홈페이지는 영어위주로 작성되었으나, 한글, 한자, 영어는 물론 아무 언어나 구사할 수 있다.

### 홈피를 이용하는 방법:

- 인터넷 브라우저의 주소칸에 WWW.SNUMCAA.US 를 친 다음에, 그 옆의 초록색 화살표, 또는 "Go", 또는 키보드의 "Enter" Key를 치면 우리 홈페이지의 인덱스 페이지에 도착합니다. 거기에서 그림 바로 밑의 게시판(board)들이나 왼쪽 상단의 링크를 골라서 클릭하시면 머지않아, 동문자유게시판이나 공고게시판에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자세한 설명이 들어갈 것 입니다.

- 등록을 하지 않고도 동창명단을 빼고는 거의 다 보실 수 있습니다만, 왼쪽 상단 그림 밑에있는 로그인칸에서 "Join"(회원등록)을 클릭해서서 등록하십시오. 등록하는 방법은 일단 등록 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 글을 쓰시거나 동창회 명단 (아직 건축중)을 보실려면 꼭 등록하셔야 되며, 등록후 24시간내에 운영자로부터 등록인증의 연락이 기재하신 E-Mail 주소로 올 것 입니다.

- 현재 서울의대 계통의 홈페이지에서 복사해온 많은 게재물이 있으니, 천천히 둘러보시면, 우리 홈페이지의 구성, 성격, 방향을 쉽게 자각하실 수 있을것입니다. 어떻게 쓰고 어떻게 대화 (코멘트)에 참석하는지도 보일것 입니다. 그런식으로 대화(코멘트)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 동문게시나 가족게시도 아무데서나 코멘트를 써서 참석하시고, 게재물 (webpage)를 쓰십시오.

- 만일의 경우에 실수하시거나 문제가 생기면, 아무때나 snumaweb@gmail.com 으로 E-Mail을 보내시면, 운영진이 해결해 드립니다. 염려마시고 써보십시오. - 2008년 4월 19일 SNUMA 홈페이지 운영자 올림

紙上法醫

좌절감



노용면(55, 대뉴욕)

뉴욕시 맨하탄 서쪽에 있는 조그마한 호텔의 객실에서 불이 났다. 그다지 큰 불이 아니었는데, 벌거벗은 여자의 시체가 침대 위에서 발견되었다. 그녀는 목졸라 사망되었는데, 목 오른쪽에 손톱 자국이 여럿 있는 것으로 보아 가해자가 왼손잡이인 듯 했다. 이밖에도 몸 여러군데에 가위로 찢린 흔적들이 많이 있었다. 목 오른쪽에 하나 있었고, 배꼽 위에 하나 있는 외에도, 무수한 자국이 아랫 배에 있었다. 가위는 배꼽 위에 꽂혀 있었다. 그런데 이들 흔적들엔 출혈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아, 그녀가 사망한 후에 찢린 듯 했다. 또한 그녀의 질속에는 부러진 빗자루가 꽂혀 있었다. 질속에 정액은 없었다. 그녀의 배 위에는 뭉쳐 쌓아놓은 휴지들이 있었는데, 거기 에다 불을 지른 듯 했다. 그런데휴지들 일부만만이 탔을 뿐 이었다. 침대 위에 있는 이불 한 쪽에는 신선한 정액이 조금 고여 있었다. 그녀의 옷은 옷장 안에 잘 걸려 있었고, 신발은 침대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누구와 싸운 흔적은 없었다. 현장에서 채취한 표본들을 경찰 검사실에 보냈다.

이런 과상망직한 소견은 성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발기가 불능한 남자가 저지른 행위일 가능성이 많았다. 심리 분석가의 의견을 물었더니, 이것이 성적 좌절감(sexual frustration)의 표현이라고 즉각 규정했다.

경찰이 이 심리 분석가가 제시한 남자와 같은 인물을 찾아 나섰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그 호텔 근처에 있는 술집에서 일하는 종업원 이었다. 호텔의 장부를 보니, 그녀가 존 브로이치(John Broich)라는 남자와 함께 유숙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John과 Broich에 있는 o 자의 꼭대기가 모이지 않은 채 텅 비어져 있어

마치도 v 자와도 같이 보였다. 손님 접수 직원에 의하면, 그 용의자는 양복차림을 한 중간기의 젊은 백인 남자였는데 별로 의심스러운데가 없었다고 했다. 경찰이 그녀가 일하던 술집에 드나들던 많은 사람들을 조심히 조사했다. 여러 사람들을 심문하고 여러 소문들을 들은 후 경찰이 결국 용의자를 찾아낼 수 있었다. 그는 서바나 계통 사람인데 진짜 이름은 호제 부론조(Jose Bronzo)였고, 그가 호텔에 제시한 이름은 가짜였다. 그는 피해자가 일하던 술집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아파트 건물에서 수위로 일하고 있었다.

경찰이 그 용의자가 사는 집주인을 찾아가 그의 계약서류들을 보고, 그가 쓴 글 모양을 조사했다. 글 쓴 모양이 참으로 색달랐다. 역시 o 자들의 위가 넓게 벌어져 있음을 보았다. 그가 적은 그의 이름이 Jvse Brvnzv 처럼 보일 정도였다. 그는 또한 왼손잡이였다. 사건 수사를 위해 필적 전문가를 채용할 필요는 없었다. 이제 경찰이 할 일은 그 용의자의 성생활을 알아내는 것 이었다. 여자 경찰관이 이 임무를 맡았다. 그녀가 용의자의 처와 친해지기 시작했다. 그의 처는 노인복지 단체에서 경영하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아주 순한 성격을 갖고 있었다. 아이는 없었다.

경찰관이 그녀에게 정성을 부리니, 드디어 여러가지 사실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자기 남편은 여자가 화를 내는 모습을 보아야 비로서 성적으로 흥분한다고 했다. 그가 자기를 화나게 하려고, 욕을 퍼붓기도 하고, 방축을 쫓아다니면서 때리기도 하며, 때로는 물건을 자기에게 집어던기기도 한다는 것이었다. 얼마전에는 자기에게 채찍을 던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녀가 과거에 받은 상처들을 보여주었다. 그가 처음에는 아내를 화나게 만들고 나중에는 사과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것은 아내를 화나게 만드려고 하는 것이지, 자기가 화나서 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했다. 그가 흥분된 후에는 성을 잘 하며, 성교가 끝나면 아주 친절하다고 했다. 그가 성교전에 이러한 결점은 보이는데, 결점이 전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고 하면서 자신을 위로하고 있었다. 부론조씨는 늘 이렇게 힘들게 전주행위를 하여야만 성교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했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는 일이 성사되지 않는다는 것 이었다. 따라서 그는 상냥하고 애교있는 여자는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니 그에게 여자 친구는 없을거라고 하면서 그녀가 웃고 있었다. 자기 생각엔 아마도 그의 어머니가 아주 화를 잘 내는 여자였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런 진술을 한후 그녀가 강조하기를, 그러나 그는 절대로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했다.

겉으로는 아주 건강하게 보이는 젊은이들 중에도 이러한 숨은 장애로

허덕이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사실 성폭행죄로 걸려든 사람들중에는 정상적인 성행위를 못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통계도 있다.

아마 부론조씨가 그날 호텔에서 자기의 성능력을 시도하려 했는데, 피해자가 그를 도와주지 않으니 성교가 불가능 했을 것이다. 이리하여 좌절감에 쌓인 그가 그녀의 목을 졸린듯 하다. 그가 여자를 화나게 하려다 그렇게까지 되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죽이려 했는지는 알수가 없었다. 그러나 여자가 죽자, 그가 그녀에게 복수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다. 시체의 아랫배에 가위로 마구 그어대다가 결국 목과 배꼽 위를 찢렸고, 음부에 빗자루를 찢러넣는 행위까지 한 것이다. 그리고 난후에 혼자서 자위 행위를 했고, 끝으로 시체에 불까지 질렀다. 이것은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한 행위였다.

이제 경찰이 많은 단서를 파악했고, 그 용의자가 범인인 것이 거의 확실해졌다. 남은것은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의 혈액검사를 하는 것 뿐이었다. 그런데 경찰관이 부론조씨의 부인을 자주 만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자, 그녀가 무언가 알아차렸던 것 같다. 경찰이 그를 체포할 준비가 다 되어 그의 집을 찾아가니, 그는 이미 도망가고 없었다. 서부 카리비안에 있는 자기 고향으로 사라졌었다. 그의 처가 그를 도왔을 것이다.

Reference:  
Yong-Myun Rho and Donal Hoffman: The Investigation of Fatal Fires, FBI Law Enforcement Bulletin 55:1-8(No.9), 1986.

Green Project Corner

모교 학생들간의 동아리 'MEXIM' 이 설립된지 벌써 1년이 되어갑니다. 졸업과 동시에 군의관으로 입대한 초대회장 이정석, 신입회장 윤찬 및 모든 회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눈부신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4월 15일자로 학생부회장 임기를 끝내신 후에도 계속 지도 교수로 힘써 주시는 김규환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GPC Chair 서인석(대뉴욕지부)

이정석 (초대회장) jslee327@gmail.com

이제 졸업을 앞두고, 차기 회장인 본과 4학년 윤찬 군과 의논한 결과를 몇가지 말씀드릴까 하여 이렇게 메일 드렸습니다.

1. 동아리 예산: 학생행정실을 통하여 올해도 동아리 예산이 들어왔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난 한 해 사용내역이 담긴 장부의 사본을 조만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동아리 활동 개시: 지난 겨울, 3학년 겨울방학을 활용하여 저희 동아리 윤찬, 양현식, 유나경 등이 미국에 clerkship을 다녀왔습니다. 김용정 선생님도 뵈고 좋은 말씀 듣고 왔으며, 새롭게 의지를 다지고 있다고 합니다.

1) 일전에 계획한대로, 2월 중으로 지난 1년간의 동아리 활동내용과 clerkship 준비요령, 후기 등에 대한 annual report를 발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형기 선생님께서 조언주신대로 무료배포 보다는 원가에서 조금 모자란 정도의 가격으로 원하는 학생들에게 판매하려고 계획중입니다. 그 밖에 미주동창회로 보낼 것과, 학교에 기증할 것 등을 추가로 인쇄하려고 합니다. 판매대금 외에 추가로 필요한 비용은 동아리 예산에서 쓰려고 합니다.

2) 올 겨울에 clerkship을 다녀온 학생들은 소아과에서 특별히 부탁을 받아, 소아과에서 일년에 4차례 개최하는 학생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가을에 있었던 MEXIM 동아리가 주최한 clerkship 설명회를 봄에도 개최하려고 했으나, 소아과에서 요청이 있었고 이에 모든 학생들이 결국 한 번씩 참여하게 되어있는 점을 감안하여 올 봄에는 설명회를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

3) 정기모임은 예년과 같이 3월 중순부터 시작하여 10~15회 가량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3. 저희는 이제 졸업생으로서 동아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 동아리를 함께 만든 저희 셋의 진로도 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와 옥찬영 군은 공중보건 의사로 입대하여 미국행을 준비하기로 하였고, 박종한 군은 모교 의과학과(과거 기초교실) 대학원에 진학하여 리서치에 몸담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미주동창회 선배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 덕분에, 이런 좋은 모임을 만들고 후배들에게도 유익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같은 학교를 졸업하였다는 이유로 이토록 저희에게 시간과 열정을 내어주셨던 뜻을 잊지않고, 졸업하고 나서도 미력이나마 후배들에게 필요한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직 마무리할 일이 있어 제가 계

속 관여하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윤찬군이 선배님들과 연락하는 주 책임을 담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윤찬 (신입회장) mousechan84@naver.com

지난 주 토요일 20명이 넘는 분들이 참석해 주신 가운데 무사히 2008년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특히 본과 1학년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셔서 새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날은 2008년 한 해 동안 MEXIM의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크게 6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번째: 격주로 이루어지는 regular meeting을 4가지 time으로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2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모임을 30분 단위로 쪼개어- knowledge sharing time, Survival English time, USMLE time, Elective experience sharing time을 하기로 계획하였고, 각각의 역할 분담에 대해 이야기 하였습니다. 또한 예년과 달리 2008년 1년 동안에 있을 모임의 날짜를 미리 정하였습니다. 2, 3, 4 학년 시간표를 참고하여 계획하였고, 후일 부득이 하게 변경이 이루어 질 수도 있겠으나 최대한 이 계획에 맞추어 행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두번째: homepage database 구축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정석, 옥찬영, 박종한 선배님께서 제안 하였던 것이기도 한데요, usmlekorea.com에 나와있는 미국대학 리스트의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가능여부, 지원시기, 지원가능학과, 준비사항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여 Exel file화 하려고 합니다. 이는 현재 본과 4학년 학생들이 분담하여 이번 학기에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한 regular meeting과 elective 설명회에서

이루어진 speech의 녹음파일을 ppt 파일과 함께 홈페이지에 upload하여 홈페이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작년 한해 MEXIM에서 얻은 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annual report를 발간할 것입니다. 이미 완성된 파일을 이정석 선배님으로부터 받아 현재 출판을 위한 준비에 있습니다. 이는 신청을 받아 그에 맞추어 출판할 것이며, 원가에 해당하는 가격을 받을 것입니다.

네번째: Elective에 대해 여러 학생들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봄과 가을에 가지려고 합니다. 봄에는 소아과 교수님의 의뢰로 소아와 실습 설명회 시간에 발표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가을에는 작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회를 가지려 합니다. 또한 현재 미국으로 레지던트를 가시게 된 채영광 선배님께서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져주시기로 하여 5월 중에 적당한 날짜를 정하여 설명회를 가질 것 입니다.

다섯번째: 맥심의 멤버십 리스트를 사진을 첨부하여 작성할 계획입니다. 이날 모임에서 기존의 멤버와 새로운 멤버들의 사진을 촬영하였고, 이를 토대로 홈페이지에 멤버십 리스트를 공개하여 선배님들께서 후배들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섯번째: 마지막으로 의료유학, Survival English, USMLE관련 서적을 적지만 몇권 구입하였고, 앞으로도 더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MEXIM library로 만들어서 언제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대여시켜 주도록 할 것 입니다.

홈페이지에도 발표 자료가 있으니 앞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할 MEXIM에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첫 날**

작년부터 1964년 동기회 이종성 회장이 코스타리카 단체관광을 제의했는데 5 커플(10명)이 동참하기로 했다. 고생은 떠나는 날부터 시작되었다. 출발 전날 저녁 여행사에서 연락이 왔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침 8시에 떠날 비행기가 애틀랜타 공항의 사정으로 인해 취소되었기 때문에 6시 20분 비행기를 타라는 요청이었다. 할 수없이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부랴부랴 서둘러야 했다. 애틀랜타에 도착하니 뉴욕에서 권정덕, 홍선경 부부, 필라델피아에서 양운택 부부가 미리 도착해서 우리 부부를 맞았고 두 시간 후에 시애틀에서 이종성 부부와 한종하 부부가 도착해 일행이 구성되었다.

오후 5시경에 코스타리카 수도 산호세로 출발하려던 비행기가 7시 반으로 연기되었다. 비행사의 설명에 의하면 기장, 부조종사, 승무원 등은 모두 준비되어 있는데 주조종사가 아직 올랜도에서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윈 세상에! 비행기 연발은 수없이 경험했지만 조종사가 오지 않아 기다리고 있다는 설명은 난생 처음 들었다. 사람들이 순진한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 사이 비행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이었을까.

**둘째 날**

코스타리카를 마약과 폭력이 난무하는 중남미 국가 중 하나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데 사실을 그렇지 않다. 다른 국가에 비해 국민 소득이 비교적 높고 교육 수준도 높다. 현대통령 오스카 아레아스는 20년 전에 인접국인 니카라과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협상을 유도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상 타기 위해 돈을 쓰거나 공작을 했다는 소문은 들은 바 없다. 그는 아예 군대를 철폐해서 군인 없는 평화국가가 되었다. 사람이 사는 곳에 좀독이어야 없을 수 없겠지만 경찰력만으로 평온을 유지하고 있다.

수도 산호세는 이 나라 한 가운데 있는 1천 미터가 되는 분지에 위치해 있어서 비교적 덜 덥다. 코스타리카 전 인구의 75%가 이 분지에 살고 있다. 그러나 분지를 벗어나려면 사방을 에워싼 산을 넘어야 한다. 분지를 제외한 부분은 대부분을 포리스트라고 불렀는데 레인 포리스트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다. 일단 분지를 벗어나면 온통 나무숲이고 1월이라 해도 높은 습도와 온도로 해서 몸이 끈적거리고 햇살이 뜨겁다.

우리는 태평양 쪽을 향해 분지를 벗어나 투루바리라는 테마 파크로 갔다. 우선 카노피 라이드. 온 몸을 밧줄에 걸치고 마치 타잔같이 나무 사이를 이동하는 것이다. 남들이 모두 탄다기에 무심코 따라나섰다가 큰 곤욕을 당했다. 라이드로 여섯 군대를 이동했는데 일단 한번 시작하면 중간에 도저히 포기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속도가 빠르면 한 손으로 밧줄을 아래로 당겨 줄일 수 있다고 해서 당겼다가 몸이 목적지 10 미터 전에서 정지되면서 꼭꼭잡이 공중에 매달린 신세가 되었다. 이런 경우 몸을 돌려 목적지를 뒤로한 다음 팔을 이용하여 몸을 뒤로 끌라고 숙련된 조교가 시범해 보였다. 볼 때는 쉬운 것 같았는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50세에 들면서 오른 쪽 어깨에 심한 관절염(소위 오십견)을 앓은 후 지금까지 통증에서 해방되지 못했고 어깨를 사용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이 아픈 어깨에 의지하여 전신을 움직인다는 것이 지옥훈련이나 다름없었다. (친구들이 몸에 좋다고 자주 골프를 권해도 듣지 않은 것은 사실은 어깨통증 때문인 이유도 있다.) 게다가 평소 때 운동을 않다가 가파른 계단을 자주 울

랐으니 카노피 라이드를 마치고 나자 온 몸이 파김치같이 되었다. 가이드 설명에 의하면 얼마 전 1941년 생 4명이 모두 이 라이드를 마쳤다고 했다. 우리는 그들의 큰 형 뺨이 되니까 작은 기록을 세운 셈이다. 알고 보니 나를 빼고는 다른 친구들은 전에 카노피 라이드를 탄 적이 있어서 요령을 체득해 있었다. 묘한 열등감과 배반감

박물관을 나와 서울 명동거리 같이 차량 통행이 금지된 거리를 걸었고 시장 구경도 했다. 그래도 저녁 식사 시간까지는 시간이 남아서 우리는 이 도시 중심에 있는 광장으로 갔다. 광장에는 큰 돌이 장식되었고 상당히 큰 코스타리카 국기가 게양되어 있었다. 돌 앞에는 교회가 있었고 마침 미사가 진행 중이어서 일행 가운데 천

쳐가고 있다는 의미였다.  
**여섯째 날**  
산호세를 떠나 이 나라 북서부에 위치한 Allegro Paragayo 란 휴양지로 이동했다. 바닷가에서 이 지역 술을 마시기 위해 바카르디 한 병을 전 날 미리 준비했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다. 휴양지 풀 바에서는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주문하는 대로 공짜로 술을 주었다. 하루 종일 식사도 무료였고.

밤 9시가 되자 야외 무대에서는 쌀사 춤판이 벌어졌다. 젊은이들은 모두 무대 근처로 나가 쌀사를 배웠다. 무대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야자나무 숲 밑에서는 중년을 넘어선 네 명의 조선 여인들이 무대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쌀사 춤을 배우고 있었다. 그 뒤에는 술과 더위에 취한 남편들이 라운지 체어에 누워 즐기고 있는 가운데.

**일곱째 날**

하루 종일 비치에서 시간을 보냈다. 바닷가를 걷기도 하고 썰물로 뱀이 드러난 곳에서 게를 잡기도 하고. 정덕이는 게 잡기에 정신이 없었다. 몇은 물 속에 들어가 수영도 했다. 대부분은 비치 나무 밑에 설치된 라운지 체어에 누워 시간을 보냈다.

이 나라에 오면서 너무 낯선 곳이라 그런지 계속 경험의 순간성을 생각하고 있었다. 수십, 수백만 년을 나와온 상관없이 존재해 온 자연 풍광과 그 속에 사는 생물과 인간들. 이제 이곳을 떠나면 영원히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이다. 지금 바라보는 숲과 바다, 이곳 사람들. 이 순간의 접촉만으로 끝나겠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옆에 누워있던 종하가 "아 인생이란 무엇인가?"라고 말을 꺼냈다. 아무도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풀 바에는 '바닷가에서 섹스'라는 묘한 이름의 칵테일을 제공하고 있었다. 술을 좀 세계 더 타 달라고 운탁이에게 부탁했다니 바텐더에게 가서 "Sex on the Beach, double, three"라고 주문하니가 주위 사람들이 웃더라고 했다. 옆에 늘씬한 미녀 두 명이 있어서 threesome 작업 준비용이라고 둘러댔 용기는 없었다가 보다.

바다 멀리 나가 수영을 하던 종성이 가오리에게 찢렸다. 발목 주위에 갑자기 전기에 감전 당하듯 심한 통증이 왔다고 했다. 해파리에게라도 물렸으리라 생각하면서 바다에서 올라왔다. 진통제 몇 알 먹고 쉬라고 했는데 통증이 가라앉지 않자 스스로 의 무실로 갔다. 상처에서는 피도 나왔다. 의사 이야기로는 가오리에 물린 것인데 어제도 그런 환자가 있었으며 통증이 가시지 않으면 국소마취를 하라고 권했다. 이씨 부인은 얼마 전에 가오리에 찢려 죽은 호주 남자를 연상했고 가오리에 남편 잃을 수는 없지 않는 절박한 심정에서 피나는 상처를 열심히 입으로 빨았다고 했다. 후시연속극 '대조영'을 열심히 시청한 때 문은 아니었는지.

**여덟째 날**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시간이 9시에서 8시로 당겨졌다고 해서 또 새벽 4시부터 설쳤다. 그래도 애틀랜타까지는 별 탈이 없었다. 여기서 종성이 대점으로 점심을 먹고 각자 행선지 출구로 나뉘었다.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제트 역류가 심해 비행기에 기름을 더 넣어야 한다는 통에 출발이 한 시간 이상 늦어졌다. 정말 기상 상태가 나빴는지 다섯 시간 이상 '도라꾸'에 실린 짐작 마냥 마구 흔들려 부대끼면서 왔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파킹장에 가 보니 차의 배터리가 죽어 있었다. AAA를 불러 충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자정에 가까웠다. 허리가 결리고 어깨가 <다음면에 계속>

# 코스타리카 인상

64년 동기여행 2008년 1월 19일 ~ 26일

정 유 석(64, 남가주)

을 잠시 스쳐 지나갔다.  
이어 이 파크에 있는 식물원에서 열대식물을 관람했고 원숭이 방, 나비 방, 뱀 방, 개구리 방, 열대조류 방, 난초 방 등에 분류되어 있는 열대 동식물을 편하게 감상할 수 있었다. 파크의 마지막은 밀립 사이에서 거세게 물이 떨어지는 세 개의 폭포였다.

다음 여정은 배를 타고 강을 오르내리면서 보는 야생 악어 관광이었다. 강 하구 바다와 가까운 지역에 악어들이 서식해 있었다. 원래 계획은 악어에게 먹이를 먹여주는 위험한 장면을 보기 위함이었다. 악어 가까이에서 현지 가이드는 배에서 내려 묘한 소리를 내며 닭 몸통을 손에 들고 물에 계속 내리쳤는데 악어들은 이미 배가 불렀는지 가까이 오지 않았다. 관광객들에게 묘기를 보이겠다고 물가에 서서 한없이 닭을 강물에 치던 가이드의 모습이 측은했다. 그래서 그냥 돌아오고 말았는데 실망한 탓인지 정덕이는 "내가 본 것은 나무와 새들 뿐이야" 라고 말했다. 사실 강가에는 수많은 야생 식물과 열대 조류가 많이 보여서 결코 밧진 관광을 아니었다.

마지막 코스로 바닷가로 가서 일몰을 보기로 했다. 빌라 카벨라스란 호텔은 백년 전에 프랑스 사람이 손수 지은 일급호텔이라고 했다. 이 곳은 태평양으로 해가 떨어지는 일몰을 감상하는데 적당한 곳이어서 항상 관광객들이 몰려온다고 했다. 카페 테라스만으로는 장소가 모자라서 아예 식당 밑에 원형 계단을 만들어 관광객들은 술 한잔 사 들고 그곳에서 일몰을 감상하게 되어있었다. 그런데 계단 밑에는 7, 8개 그리스 형식의 원주가 설치되었고 원주 위에는 조화 같은 꽃 장식도 있었다. 음악이 계속 흘러 나왔는데 장중한 선율이었다. 잘 차려진 정례식장 같은 분위기였다. 몇 년 전 이집트 관광을 할 때 현존하는 39개의 피라미드가 모두 나일 강 서쪽에 위치했다는 사실이 생각났다. 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해가 지는 서쪽에서 죽음을 연상해 왔다. 그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여행 떠나기 이틀 전에 심장마비로 타계한 가까이 지내던 한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이었을까?

**셋째 날**

휴화산이지만 2천 미터가 넘는 산봉우리의 화산 흔적을 보기 위해 보아스 화산으로 갔지만 깊은 안개 때문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 대신 산호세로 돌아와 도시 관광을 했다. 처음 간 곳이 금 박물관. 콜럼버스 일행이 이 나라 동부 해안에 도착했을 때 마중 나온 원주민 대표들은 온통 금으로 전신을 장식했다고 했다. 그래서 콜럼버스 일행을 이 곳을 '풍부한(Rica) 해안(Costa)'이라고 불렀다. 그만큼 당시 금이 풍부하게 생산되었다고 한다. 금 박물관은 이런 금붙이들을 진열해 두었는데 이 나라의 역사 박물관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었다.

주교 신자 6명은 미사를 드리고 왔다. 나는 지나가는 차량과 인파를 무료없이 쳐다보고 있던 중 옆이 무성한 큰 나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수백 마리의 새들이 시끄럽게 지저귀면서 가지 사이를 움직여 다녔다. 모양은 까마귀 같았는데 석양빛이긴 했지만 내 눈에 보인 것은 확실히 모두 초록색 새 떼였다.

**넷째 날**

활화산인 아래날 산으로 옮겨 도중에 이구아나 서식지에서 나무에 서식하고 있는 이구아나를 구경했다. 테네시 윌리엄스의 작품 '이구아나의 밤'이 머리에 떠올랐다. 어린 아이들의 몸에 손을 대어 신부직이 박탈된 주인공은 이구아나 서식지에서 가이드로 연명한다. 그 '밤'은 덥고 끈적거리는 기온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의 남성다움에 끌린 여성 관광객들의 끊임없는 유혹, 암울한 앞날로 인해 목적 없이 술에 취해 살아가는 주인공의 모습이 '이구아나의 밤'을 이루었을 것이다.

아래날 자연 온천지역은 마치 무릉도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활화산의 지열에 의해 끓여진 물은 계곡을 따라 흐르는데 곳곳을 막아 물의 속도를 조절했다. 그 속에 들어가면 이것은 글자 그대로 자연산 자쿠지. 온천수의 온도는 41.3도에서 미지근한 온수까지 차이가 있었다.

숙소는 방갈로에 다섯 개 방이 모두 붙어 있어서 편리했다. 그 날 밥은 한 자리에 모여 종하가 미국에서부터 준비해 온 위스키 한 병을 비우면서 모처럼 학창시절 모습으로 돌아갔다. 가끔 걸을 지나가는 관광객들도 눈살을 찌푸리지 않고 우리들의 모임에 덕담을 건네 주었다.

**다섯째 날**

산호세로 돌아오는 길에 발디라는 온천에서 한동안 시간을 보냈다. 이 온천은 아래날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산에서 물이 내려오는 대신 여러 개의 풀 장, 사우나 등이 있으면서 휴식 공간이 넓고 쾌적했다. 항상 앞장에 서서 모범을 보이던 정덕이는 워터 슈트를 보자 동심으로 돌아갔는지 물 썰매를 타고 내리면서 즐거워했다. 아래날 화산지역에 도착한 후 항상 산정이 구름에 가려져 불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발디 온천에서 잠시 산정이 보였고 아주 작은 양의 구름이 있었다. 어떤 이는 그것은 화산에서 나온 열기로 인해 생긴 수증기라고 생각했고, 어떤 이는 지나가는 구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누가 그 정답을 알 수 있느냐. 수증기로 생각한 사람은 수증기를 보았고 구름으로 생각한 사람은 구름을 보았을 뿐.

산호세로 돌아온 일행은 이틀 전과 다른 한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처음 식당에서는 소주 4병을 마셨는데 이곳에서는 3병만 마시고 한 병은 반환했다. 그것은 우리 일행이 조금씩 지

# 오래사는 비결

오 태 회 (64, 커네티컷)

몇 주일 전이다. 건강하던 친구가 뜻밖에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저녁 늦게 전해 듣고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새벽이 밝아오자 이번에는 고막을 찢는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온 동네를 흔들어 깨웠다. 앰뷸런스는 이웃집 응급환자를 싣고 처마에 얼어붙은 고드름이 으스스리게 사이렌을 울리며 영하의 새벽 공기를 갈라 놓고 사라졌다.

미국심장학회(AHA)의 발표에 의하면(1/22/08), 지난 6년사이(1999-2005)에 미국 심장질환 사망자 수가 25.8%로 줄어 들었다고 한다. 이 숫자는 심장학회가 2010년까지 예상목표로 하는 사망자 수(25%)보다 더 적은 숫자이다. 어쩌면 백분율 숫자는 더 많은데 사망자 수는 더 적다라는 말이 헛갈리기 쉬운데 그 만큼 사망자 수가 더 줄었다는 뜻이다. 다시 설명하면 인구 10만 명중에 심장질환 사망자 수가 195명에서 144명으로 줄어들어 심장학회의 2010년 예상목표보다 더 줄었다는 얘기이다. 또한 뇌졸중(stroke) 사망자 수는 그 동안 24.4%가 줄어들어 61명에서 47명으로 감소하는 기록을 세웠다. 결과적으로 미국전역에서 2005년에는 거의 16만 명의 심장질환 환자가 더 살아 남으며 이런 추세가 계속하면 올해 2008년에는 24만 명의 심장질환 환자가 더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보건통계국은 심장질환 사망률이 계속 감소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나, 지금 세대는 지나간 세대에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음식에 유의하고 흡연을 삼가하며 보다 나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로 들고 있다. 의학계는 심장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연구가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여 심장질환 발생률이 줄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질환이 생기면 더 많은 환자를 현대의학이 살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아무튼 심장질환과 뇌졸중이 예상보다 더 많이 줄어들고 있으니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내 주위에서는 날이 갈수록 더 늘어 간다는 느낌이다.

문제는 유행병처럼 급증하는 당뇨병과 비만증의 발생과 치료가 경제와 지역, 인종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많은 현실이 심장질환의 감소를 무색하게 만든다고 심장학회 회장 대니얼 존스는 지적하고 있다. 해마다 미국의 성인 당뇨병(Type 2) 환자 2천1백만 가운데 28만4천 명이 사망하는데 사망의 주요원인으로 심장질환이 으뜸이다.

얼마전 발표된 국립 심장, 폐, 혈액 연구원(NHLBI)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당뇨병 환자 1만251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Avandia를 투약하여 치료한 그룹과 여태까지 알려진 표준(Standard) 방법으로 치료한 그룹의 사망자 수를 비교한 결과 A-그룹에서 257명, S-그룹에서 203명으로, 사망의 주요 원인이 모두 심장질환(heart

attack)이다. 사망자 수가 예상보다 많이 발생하자 NHLBI는 2009년에 끝나는 이 연구를 18개월 앞당겨 지난 2월에 중단하였다. 또한 지난 2월초 뉴잉글랜드 의학저널(NEJM)에 게재된 크리브렌 클리닉의 종합연구결과는 Avandia를 복용한 성인당뇨병 환자 2만8천여명 가운데 43%가 심장질환을 일으켰다. 이런 결과로는 식약청(FDA)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참고로, 의사에게는 별다른 설명이 필요없지만, Avandia(Rosiglitazone)는 다른 당뇨병 치료제와 달리, 환자에게 투약하면 인슐린을 증가시키지 않고 이미 체내에 분비된 인슐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혈당을 저하시키는 성인당뇨병 치료제이다. 1999년 영국 Glaxo SmitKline 제약회사가 개발한 이후 세계적으로 6백만 여명에게 투약되었으며, 지난 2007년 5월 FDA는 Avandia 사용에 따르는 심장질환의 부작용을 경고한 바 있다.

따라서, 당뇨병과 비만증을 근본적으로 퇴치하는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의 물결이 다시 몰려 온다고 심장학회는 예고하며 심장질환이 아직도 미국인 사망의 첫 째 원인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 더구나 어린이의 당뇨병(Type 1)과 비만증은 더욱 기세를 부리는데, 25년 전부터 주정부나 일부 지역적 차원에서 시작한 어린이 당뇨병과 비만증의 연구와 치료가 앞을 가려 심장질환과 뇌졸중 연구와 치료가 만족한 성과를 나타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한다

알다시피, 임상의학 통계숫자는 주어진 질환을 연구치료를한 결과로 얻은 종합적 수치를 통계학적으로 계산한 확률이기때, 환자 개개인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반대로 진단과 치료를 전담하는 의사가 질환의 진단과 환자의 사활에 관한 중대한 일을 환자 자신이나 가족에게 설명하려면, 가장 먼저 인용하는 것이 통계 숫자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오래 살려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누구나 건강에 유의하여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하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다고 포기 할 수는 없다. 노력하면 인생행로가 바뀔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모두 살아가는데 100세를 넘게 오래 사는 사람도 없지 않다.

끝으로, 수필가이며 의학평론가 김 일훈 선생은 지난 5년동안 수집한 증거에 바탕을 둔 획기적 저서 <생활건강학>을 집필하여(서울, 의학신문사, 2007), 의료인은 물론 일반인도 알아 두어야 할 여러가지 건강상식을 알기 쉽고 흥미롭게 설명하고 있다. 전부 405쪽 9장으로 엮어진 책자는 특히 제7장에서 한 세기를 넘기고 떠나간 세계적 저명인사 다섯 사람의 생애를 간단히 소개한다. 그들의 공통점은 온화하고 명량한 성격에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가득찬 생애를 마쳤다는 사실이다. 여담이지만, 대개 고집불통인 사람이 오래 산다고 한다. 아마 육체보다 정신이 말짱해야 웃고 오래 살 수 있는가 보다. 그러나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이 균형을 잃지 말아야 참다운 삶을 만끽할 수 있음은 동서고금의 진리이다.

<전면에서 계속> 아파 잠시 침대에 누웠는데 이내 깊은 잠 속으로 빠져 버렸다.

### 다음 날

늦게 잠에서 깨어나니 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팠다. 그동안 몸을 움직인 것이 평상시보다 백 배는 된 셈

이다. 결국 여행 끝에 남은 것은 통증과 함께 희미해져 버릴 기억 뿐. 지난 한 주일이 마치 일장 춘몽과 같이 느껴졌다. 망각으로 사라질 기억을 붙잡아 두기 위해 책상에 앉아 억지로 몇 자 적기 시작했다.

# 투명인간

허 선 행(64, 대뉴욕)

한국 땅에 선거철이 올 때 마다, 특히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 여기저기서 너도 나도 대통령이 되어 보겠다고 여러 저명한 인사들이 출마하는 것을 보아왔다.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해방 후 몇 번째 대통령 선거인지는 내 나이 또래면 다 알 수 있겠지만 진정코 공평하고 공정한 선거는 몇 번이나 될지!?! 하지만 과거 몇 번의 선거는 그런대로 선거운동에서나 투표, 개표 과정에서 큰 잡음 없이 행해졌다고 기억된다. 50여년 민주주의를 터전을 닦아온 보람이 있다고 보면서 서서히 민주주의 국가의 대열에 들어선다는 것이 나의 좁은 소견의 표현인지도 모르겠다.

부정부패를 거리낌 없이 들추어내어 처벌하며 또한 이의 빈도를 줄이고 정부와 대기업간의 흥정이나 부정거래를 파헤치는 전 국민의 정서가 이번 선거의 진로를 정해줄 것으로 간주되면서 아직도 정치와 권력 그리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음모, 횡포, 부정, 뇌물, 허세 등등... 그것을 다 알면서도 정치인을 부러워하는 것이 또한 우리 인간 모두의 숨겨진 본능이 아닌지!!

많은 사람들이 알고있는 이야기 같지만 너무 깊은 뜻이 있기에 여기에 적어 본다면, 희랍의 대철학자 Plato의

저서중 "Republic Book II" 중에 "The Ring of Gyges"에서 왕족의 고용인인 양치기 청년 Gyges가 지진으로 붕괴된 전왕의 묘지에서 그 시체가 끼고 있었던 금반지를 발견하게 되어 그것을 자기 손가락에 끼어 보게 되었고 그 반지를 어느 한쪽으로 돌려 봤더니 자기가 투명인간이 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 여왕을 유혹해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제왕이 되었다는 실화같은 옛날 이야기이다. Socrates를 비롯해서 여러 철학자들이 이 반지의 이야기가 뜻하는 이면의 갈등을 비판해 왔고, 정의, 부정, 윤리, 도덕 및 인간의 본성을 분석 비판해 왔지만 따지고 보면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성선설, 성악설의 일부를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여러 해를 걸쳐, 아니면 일생을 바쳐 대통령, 또는 위대한 정치인이 되려고 노력했고 터를 닦아놓은 여러 후보자들께서 그렇다고 투명인간이 되어서라도 권력을 쟁취하고 싶은 것은 아니길 바라며, 또한 어느 사회에나 국가에도 늘 존재하는 투명인간들이 대기업을 운영한다든가 크고 작은 범죄조직을 이끌어 가며 그 본체를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현대 사회에서도 많이 있으니 이를 질타하려 했던 것이 Plato의 의도에서 2400여년전 문헌으로 남겨져 많은 사람에게 읽혀졌고 비판을 받아온 것으로 믿는 바이다.

이제 우리는, 특히 정치인들은 불투명했던 투명인간의 탈을 벗고 투명한 정책 및 공약을 천명하는 그리고 누구나 볼 수 있는 투명인이 되길 바라는 바이다.

## 농담골목

유태 레바이 두 사람이 중국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중국에도 유태인들이 있는지 궁금해 했습니다. 그래서 웨이터한테 "Do you have Chinese Jews?" 라고 물었더니, 그가 주방에 가서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얼마 후 웨이터가 하는 말이 "We have no Chinese juice, but we have apple juice."라고 했습니다. (면)

남자들의 넋을 뻗을 정도로 아름답게 생긴 탈렌트가 병원에서 부상병들을 위문하고 있었다.

"부상 당하기 전에는 적군을 몇명이나 해치웠지요"

"정확히 20명이죠."

"총으로요? 아니면 칼로요?"

"둘 다 아닙니다. 이 맨주먹으로 끝장냈죠."

감명을 받은 탈렌트가 그의 주먹에다 스무번의 키스를 해주었다.

그녀가 가고 나자 옆자리에 있던 부상병이 말했다.

"야, 이 멍청아! 왜 놈들을 입으로 물어 죽였다고 말하지 않았냐?" (이덕승)

조선조 어느 임금의 평민으로 가장을 하고 민정시찰을 나섰다가 한 주막에 들어 갔다. 그리고 음식을 주문하려고 일하는 여자를 불렀더니 짜증을 내면서 신경질적이다.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귀찮게 구느냐는 것이었다. 그 광경을 멀리서 보고 있던 주막주인이 냅다 달려와 그 처자를 쥐어 박으며 이렇게 말했다.

"손님은 왕이라 그랬잖아, 그게 무슨 짓이야!"

그러자 옆에 있던 신하가 조용히 말했다.

"마마! 들켰사옵니다!" (行)

누가 보스냐?

어느날, 머리와 위장 다리 셋이 누가 보스이냐 하고 다투고 있었다.

머리가 말을 꺼냈다. 내가 사리판단을 하여 온몸이 행동하도록 명령을 하니 당연히 내가 보스이다. 위장은 머리가 사리판단을 아무리 잘 해도 위장이 영양을 공급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 위장이 보스라고 나섰다. 다리는 그게 다 헛소리이다. 내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고 소리를 질렀다. 잠자코 듣고만 있던 항문이 내가 보스이다 하고 갑자기 끼어 들었다. 이 말을 듣자, 너 같은 똥구멍이 무슨 보스이냐 하고 모두 한바탕 웃었다. 화가난 항문이 두고 보라면서 그날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셋은 웃고만 있었다. 한 주일이 지나고 두 주일이 되자 머리는 혼미상태에 빠져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위장은 심한 소화불량으로 구역질이 나서 영양을 공급할 수가 없는가 하면 다리는 후들 후들 떨리고 휘청거리 일어설 수도 없었다. 그러자 셋이 드디어 항복을 하였다. "야, 똥구멍 그래 네가 보스이다." (오태회)

그전에 딸이 시집가면 남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아들이 장가가면 남이 된다고 해요. (김세-)

# 어느 친구의

## Holiday Greeting card

윤희영 (Mrs. 이만택, 펜실바니아) c

이민 초기 우리 부부가 현금 200달러와 가방 둘만 달랑 갖고 왔을 때의 생활로, 여의도 공항을 떠날 때 부모님과 형제들의 신신당부, 미국에 가선 절대로 African American들을 보는척 말고 그들 동네 주변에는 얼씬 말라는 인종차별주의를 나의 가슴속, 머릿속 깊숙이 뿌리를 받게끔 우리 자신을 방어하며 미국 생활을 시작했던 것 입니다.

1960년 중반 때는 미국의 인구 밀도도 지금보단 훨씬 적었고 우리와 더불어 흑, 백 미국시민들도 또한 모두 순진했고, 인심 좋았고 살기 좋은 시절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첫 발 디딘 곳이 뉴저지 수도인 트렌톤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영어도 잘 못하는 인턴 가족에게 병원 가까운 곳 백인들만 사는 좋은 동네로 방이 세개나 되는 단독주택에다, 매주 공짜로 지급 되어지는 침대보와 타월까지, 또한 어느 땐 병원 식당에서 저녁 식사도 제공받았으니 후한 대접을 받은 셈이었지요. 그때 그곳 동네 백인 주민들은 우리를 아침마다 만나게 되면 그들의 활짝 핀 큰 미소와 더불어 무어라 인사들을 하였는데 나는 영어에 자신이 없어 집안에서 혼자 거울보고 연습했던 미소로 그들에게 대응하곤 했을 뿐이었습니다.

Manny의 다음해의 레지던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많은 곳의 정보를 얻어야 했었습니다. 그곳 병원에서 함께 일하시는 의사님들이나 또한 이웃 분들께서 아주 보수적인 생활과 사고 방식이라 자동차 거리로 2 시간 정도인 뉴욕도 그 시절엔 가보시지 않은 분들이 태반이었습니다.

미국에 처음 와서 제일 즐겁게 다녔던 곳은 공립도서관으로, 그 큰 건물 안에 수장된 수많은 책들이며 또한 몇 권의 책을 어느 기한까지 공짜로 빌려 읽을 수도 있었으니 그땐 그곳이 나의 천국이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얼마 후 병원 안에도 큰 도서관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Manny의 레지던트 자리를 찾기위해 병원 도서관을 들락날락하다가 그곳 도서관에서 일하는 Mae William이란 아프리카-아메리칸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별 친구도 자동차도 없었으니 갈 곳이란 도서관 뿐인데 책 빌려 갈 때 또는 돌려 줄 때 꼭 만나게 되는 Mae를 뵈 수 있으면 눈길을 피했고 혼자서 열심히 연습했던 미소까지 그녀에게 전 절약해가며 그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백인들보다 한국인인 나만이 속 좁게 Mae에게 차별 대우를 하였습니.

아마도 우리가 처음 트렌톤에 도착했을 때엔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의 좋은 교훈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닫고 살았든 것 같습니다.

일년후 Manny의 레지던트 프레이닝을 받으러 뉴욕 브롱스에 있는 Albert Einstein 의과대학 병원 근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때 브롱스란 곳은 한쪽은 이태리 주민들이 많이 살았고 다른 쪽엔 많은 아프리카-아메리칸들의 거주지였습니다. 다행히 병원 식당 이탈리아 주방장이 자기 집 이층을 세놓는다는 쪽지를 보고 그곳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다.

그 브롱스에선 어디를 가나 여러 인종들 간에 차별없이 서로 부딪쳐 가며 살수 밖에 없었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인종차별하는 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 시장 갈 때에도 지름길을 놓고 먼 길로 뺨 돌아 다녔으니깐요.

우리가 Mae를 처음 만났을 때엔 아마도 Mae 자신은 자기 어렸을 때 백인들로부터 많은 차별을 받아왔던 처지인지라 우리의 인종 차별하는 눈치를 알면서도 처음으로 미국에 들어온 동양인인 우리가 생소한 곳에서의 생활이 많은 고생이 될 것이라는 그녀 대로의 노파심으로 여러 염려와 걱정으로 어느 곳에서 만나게 되면 친절을 베풀었고 도움을 주려했던 좋은 그녀였다고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자신의 무지로 우리들 자신이 여러 갈등 속에서 살게되었고 Mae의 선한 마음을 아프게 하여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뉴욕 브롱스 생활에서 인종차별 않고 살았어도 미국생활이 그리 역겨운 생활이 아니었음을 알게된 후 우리 마음도 좀 부드럽게 되었고, 8년 후 옛날 인턴하던 병원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만난 Mae는 우리의 상봉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도서관가는 것이 즐거웠으며 그곳서 Mae를 만나게 되면 영어도 배울겸 서로 웃고 얘기도 많이 하고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서 Mae의 훌륭한 성품과 그녀의 생활을 알게 되었습니다.

Mae는 중상류의 아프리카-아메리칸 가정에서 태어나 여러 형제들과 더불어 잘 살았다고 합니다. 얼굴색도 연한 검은색으로 예쁜 인상을 주는 한 50세 정도로 멋도 부릴 줄 아는 분이었습니다. 1940년 땐 미국 많은 대학에서 인종 차별로 그녀는 고등학교 졸업 후 원하던 미술 대학에 들어가질 못했고, 글 쓰기와 읽기를 좋아해 도서관에서 책과 더불어 일하다 문학에도 박식했으며, 얼마후 세상도 많이 변해 원하던 미술대학도 졸업을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화가로서의 일자리가 없어 다시 옛 도서관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왔을 때엔 병원 도서관장 지위에 올랐었고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인 남편과 결혼하여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즐겁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거의 40년간을 그녀의 매년 언제나 다르게 잘 만들어진 좋은 Holiday Greeting card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좋은 글 솜씨에다 화가 재질도 겸한 상상력이 들어있는 그 카드는 보고 또 보아도 싫증이 나지 않았으며 오래 볼수록 그림 속에서 더 깊은 뜻을 찾아내게 되었고 그녀의 글은 읽는 이로부터 마음의 충동을 갖게하여 심금을 울려나게 하는 보배로운 글과 그림을 겸비한 아름다운 홀리데이 그리팅 카드였습니다. 나의 생각으로 그녀는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바로 다음 날부터 다음해의 카드를, 유명한 화가들이 훌륭한 그림을 그리듯 깊은 생각을 갖고 연구하고 연마해서 만들어진 값있는 카드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여전히 아름다운 카드와 더불어 자기의 옛날

이야기와 현재 자기 나이 86세 이고 또한 건강도 좋지 않아 자식들 생각 없이 남동생 사는 가까이로 옮긴다는 사연을 받고 그때야 그렇게 많은 연세 이였음을 알게 되었고 그동안도 끊임없이 좋은 카드를 보내 주셨음을 마음 깊숙이 감사 드렸습니다. 수십년 동안 그녀가 보내준 좋은 카드 받는 재미로 나 또한 좋은 카드를 사서 보내겠다고 매년 12월 초만 되면 이곳저곳 유명 브랜드 쇼핑몰을 많은 날을 다녔습니다. 우리 정도와 직성에 맞게 살았어야 했었는데 괜한 나의 속절없는 허영심이 그녀의 성실하고 진실된 삶에 괜한 헛수고였다고 많은 해를 보낸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87세 때의 그림이나 글이 전보다 좀 간단했고 그 후론 자신의 생존을 알리기 위해 추수감사 바로 뒷날 그녀의 카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해부터 그녀의 치아도 약해졌음을 고려해 카드와 더불어 부드러운 과일 상자를 보냈습니다. 그 과일 상자를 받으시고 곧바로 잘 그려진 그녀의 옛 그림 한 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그녀의 카드와 더불어 보배로운 그녀의 소유물 하나씩을 꼭 받게 되었고 우리는 카드와 더불어 아주 더 부드러운 과일 상자를 보냈으며 서로가 공짜가 없다는 그리운 아름다운 마음을 주고 받고 했습니다.

올해에도 추수감사절 다음날에 그

녀의 좀 간단하고 명쾌한 홀리데이 그리팅 카드와 더불어 우리 가정의 훌륭한 홀리데이 파티때 사용하라고 예쁜 한세트의 내프킨 홀더와 내프킨을 보냈습니다. 그 카드 옆 비좁은 장소에다 "I'll be 91 in January, just an old lady now! wow! I'm still hanging in there."라고 소식 왔습니다. 언젠가 하늘나라로 가시게 될 그녀를 생각하니 눈물이 나왔습니다.

거의 반세기가 되어 가는 미국 생활에서 우리는 빙글빙글 도는 지구의 원심력에 끌려 살아 왔습니다. 미국에 방금 도착한 그때에 아프리카-아메리칸들을 무서워 했던 우리가 이처럼 그 어느 누구보다 Mae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게끔 되었으니 참으로 알 수없게 변해버린 우리의 마음입니다. 변한 세상 따라 우리의 삶이 변했음은 좋은 배움의 성장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각자의 인격 가치는 겉모양이나 그 어떤 피부 색깔보다 자신들이 살아가며 얻게된 삶을 자신이 갖고 닦고 연마해서 자신의 가치로 만들고, 어느 곳에서나 또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과 편안함을 주고, 타인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겸손함을 지니고, 값있고 생산적 삶을 갖고 살아간다면 어느 인종의 구별없이 많은 이로부터 사랑을 받게되고 더불어 자신도 행복하게 되며 자신의 값어치의 댓가를 받게될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 봄을 기다리는 마음

이 한 중(65, 미시간)

미시간의 겨울은 길어서 좋다.  
나의 마음은 오랜만에  
여유를 갖게되어,  
나는 꼼꼼히, 빠짐없이,  
정돈이 되어가고,  
더 푸근해지고, 너그러워진다.

미시간의 겨울밤은 길어서 좋다.  
나의 마음은 오랜만에  
사색의 시간을 마음 갖게되어,  
가다듬게되고, 무엇을,  
중요한 그 무엇을,  
잊어버렸던 사람들을,  
더욱 사랑했어야했던 그분들을,  
생각하게 되고,  
느끼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 들들을,  
하나 둘 세워 보게되고,  
추억들을 더듬어 보게 되고,  
창조주를 생각하게 되고,  
나를 보살피는 신에게  
감사하게된다.

그래서 미시간의 동지절달,  
북극 날씨의 일월달, 이월달의 긴긴 동면은 지나가게 되고,  
몸과 마음의 저하된 신진대사에  
익숙하게 되고,  
조용히 순종하는 그 마음은  
오직 어여쁘고 가룩하기만 하구나.

화려한 미시간의 봄, 여름, 가을의 기억들,  
어느새 긴긴 겨울밤 망각세계로 흘러가버린 어느날,  
차분히 깨우친, 변모된 나의 마음은  
우연히 그들을 생각하게 되고,  
나는 또 다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푸른 희망, 소망들로  
나의 가슴을 채우게 된다.  
나의 깨끗한, 정결한 마음을 푸르게 한다.  
저 하얀, 고운 흰눈 밑에 튜립을 생각하게 된다.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God."



# 2008 컨벤션 화보: *Golf Award and Scientific Sess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172-10 45 Avenue, Flushing, New York 11358

e-mail: [snucmaa@yahoo.com](mailto:snucmaa@yahoo.com)

Tel: (718) 888-2622 / Fax: (718) 888-2608